

그래픽 유

## 건강보험료 돈 푼다

〈2년간〉

### Cover story 오바마케어 지원 확대

빈곤선 150%까지 '0' 달러  
실직자 COBRA 6개월간 면제  
고소득층 보험료, 수입 8.5%까지

민주당 장악 연방 의회와 대통령이 출범 초  
기 파격적인 국민 복지 확대 행보를 이어가  
고 있다. 1,100만 불법체류자에게 8년간에  
걸친 미국 시민권 취득의 문을 열어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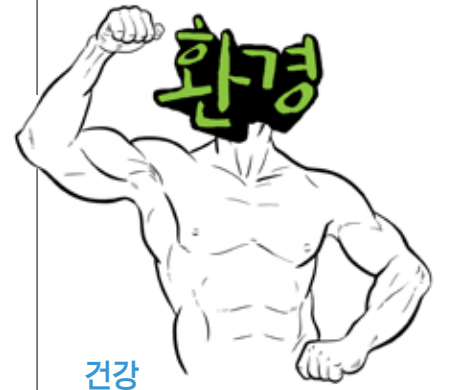
고 밝힌 데 이어 이번에는 트럼프 행정부 당  
시 폐쇄 위기까지 몰렸던 전 국민 건강 보험  
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시작했다.

비록 2년간의 한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경선 당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의  
'메디케어 포 올' (전 국민에 메디케어를...)  
공약에 한 발짝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  
오고 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1993년 이래

처음으로 세금 인상안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 부양금과 건강보험 지원 확대의 재  
원을 국고에 의지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분  
석된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법인세를 기  
존 21%에서 28%로 올리고 연 소득 40만 달  
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  
하겠다는 것이다. 또 트럼프 전 행정부의 상  
속세 완화 정책을 되돌릴 것으로 백악관은  
예상했다. 김정섭 기자 8·9·23면에 계속



### 건강

장수비결 유전인자보다... 6면

### 장기 간병

양로병원 독방 하루비용 4면

### Cover story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8·9면

### 은퇴연금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 활용 11면



### 소셜연금

연금 받는데 소득 있다면? 12·13면

### 코로나 백신

코비드 백신관련 일문 일답 14·15면

### 대학 학자금

자녀의 미래를 위한 저축 18면

### 세금

유산으로 받은 현금·부동산 20면

### 잘먹고 잘살기

홍지은 기자의 웰빙이야기 22면

### 칼럼

김동희 칼럼 26면

풍부한  
경험  
성실  
신뢰

**제인 김 CPA**  
(323) 840-3238  
전 남가주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 회장

예술의 향기가 있는 곳

**lee & lee Gallery**  
(213) 365-8285  
3130 Wilshire Blvd #502,  
Los Angeles, CA 90010

US **metro news**

usmetronews@gmail.com

매월 첫번째 목요일 선보이는 'US 메트로  
뉴스'는 생생한 정보, 유익한 읽을 거리와  
따뜻한 소통, 맛있는 이야기를 담은 웰빙가  
이드입니다.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 서울 메디칼 그룹 메디케어 HMO의 추가 혜택에 대해 알아보까요?



보험에 가입하시기 전에 **전문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1**  **치과**

연간 리미트 \$1500 선에서 다양한 치과 진료 혜택 보장  
코페이 \$0 정기 check업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2**  **침술**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침술과  
카이로프랙틱이 일부 플랜은 든든하게 보장해 드립니다.  
연간 평균 18회 제공 (보험사에 따라 24~36회 까지 보장)

**3**  **안경**

대다수 안경테 (\$200 까지), 렌즈, 눈검사 등 전체 보장  
(코스트코, 계약되어 있는 다수의 한인 안경점)

**4**  **보청기**

귀 안에 쏙 들어가는 최신 보청기 보험 플랜에 따라  
\$1000 ~2000 까지 보상

**5**  **일반의약품 (OTC)**

보험사 플랜마다 다르지만 3개월에 \$100 정도  
현금을 데빗카드에 입금  
진통제 부터 파스, 각종 건강보조식품 등 처방약이 아닌  
제품을 위한 OTC 구매 지원 제공

**6**  **해외 여행시  
응급치료**

오리지널 메디케어로는 커버가 안 되는  
메디케어 HMO 플랜에 따라 적은 곳은 5만 달러에서  
많은 곳은 100만 달러까지 커버

**7**  **차량 제공**

고령의 시니어가 병원이나 주치의 방문 시  
필요한 교통편 제공. 연간 리미트 24회까지  
(메디케어 HMO 플랜 보험회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8**  **운동**

“실버스니커즈” 연계된 24시간 피트니스,  
YMCA 등 전국 1만 4000여 곳의  
유명 피트니스 센터 무료 이용  
(보험사 플랜에 따라 골프비용 한달에 \$45 씩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  **발기부전  
치료제**

주치의 처방시 매달 4~6 알의 발기부전치료제  
(바이아그라, 시알리스) 제공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약품과 거의 동일한 효능의  
제네릭 치료제가 제공

**10**  **기타 혜택**

어떤 플랜은 퇴원 후 3~5일간 식사 자택으로 배달  
당뇨 시니어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인  
프리스타일 리브레 제공 등



3년 연속 환자 만족도와 의료진 진료 수준  
최고 5성급 메디칼 그룹

**휴매나**

**웰케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앤섬  
블루크로스**

**센트랄헬스  
헬스넷**

**브랜드 뉴데이**

**블루실드**

**에트나  
에스티바**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90% 이상의 한인 의사들이 서울 메디칼 그룹에 가입되어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파트 A는 병원, 파트 B는 진료, 파트 D는 처방전

‘오리지널 메디케어’ 병원과 진료비용만 커버  
파트 C는 A+B+처방전+추가 서비스 제공  
리퍼럴 수월한 SMG 같은 대형그룹 선호

“아무리 설명해도 지나치지 않다.” 메디케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사람이 질문을 던지고 수없이 많은 대답이 오고 가지만 정확히 의미를 알고 있는 한인들은 그리 많지 않다. 보험 에이전트에게 알아서 해 달라는 한인들이 많은데 잘못된 생각이다. 가입자가 정확히 알아야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방정부는 보험 에이전트에게 고객들이 원하는 메디케어 플랜을 정확하게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만약 이해를 못한다면 이해할 때까지 반복해 설명한 후 플랜 가입 신청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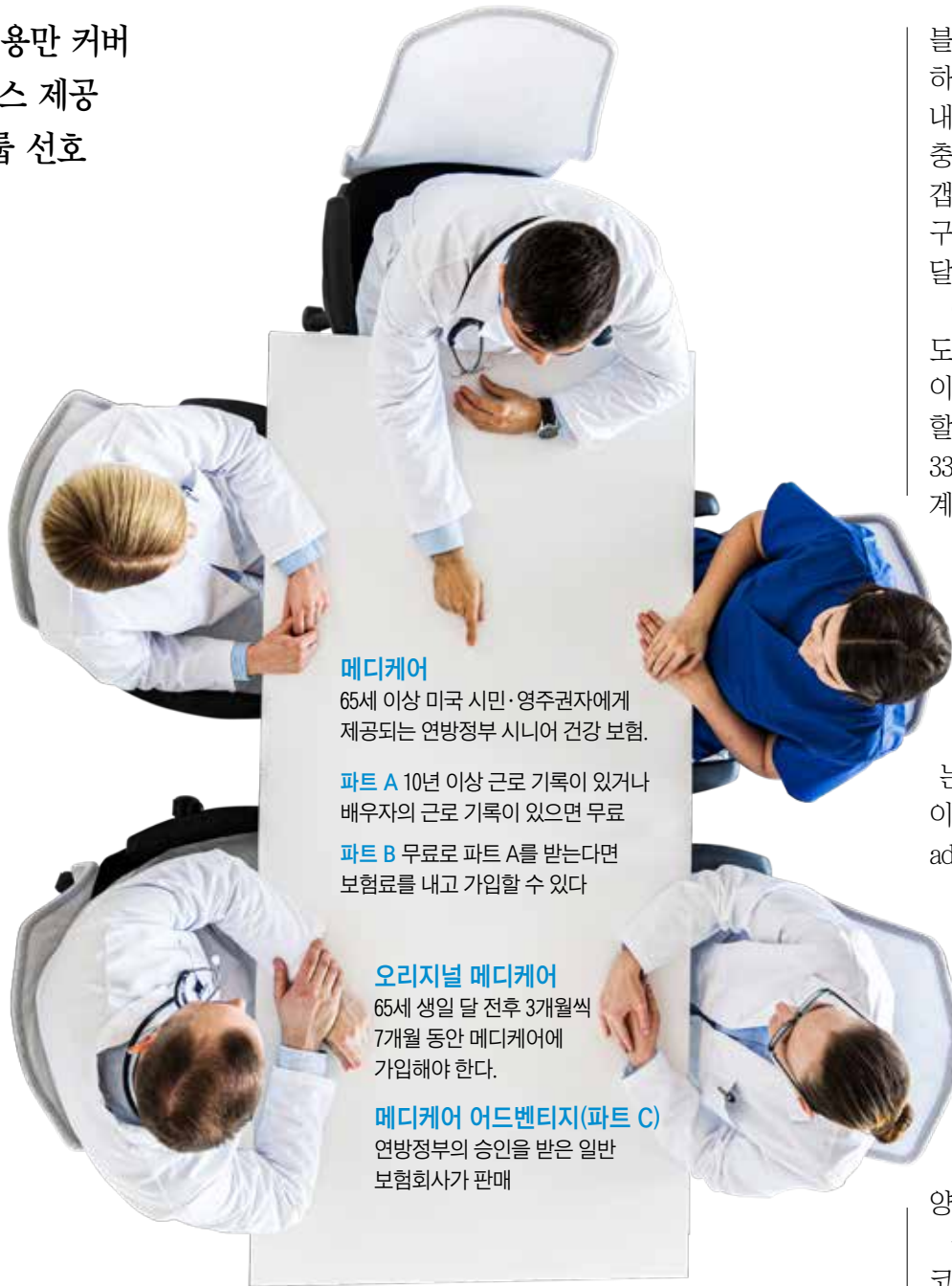
### 메디케어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시니어 건강 보험이다. 물론 65세 미만이라도 말기 신장 질환이나, 루게릭병,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소셜연금을 2년 연속 받은 사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좋은 국민 건강 지킴이다.

메디케어를 받으려면 우선 미국 소셜 시큐리티 복지 혜택의 기본 골격인 10년 이상 근로 소득을 정부에 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40 크레딧이라고 부른다. 1년에 4 크레딧 씩 10년 이상을 일했다면 메디케어뿐 아니라 소셜 연금 수령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이 기록이 없다면 돈을 주고 메디케어를 구입해야 한다. 그러나 돈을 내지 않고 받을 방법도 있다. 근로 기록이 없거나 부족하더라도 수입이 연방 빈곤선 100% 또는 138%(캘리포니아) 이하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주 정부 재원으로 메디케어에 필요한 의료비용을 제공해 준다. 이를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라고 한다. 메디케어에 내야 할 돈을 메디케이드에서 대신 내주고 보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메디케어는 병원 입원비를 총담해주는 ‘파트 A’와 의사와 관련된 진료, 치료비를 커버해 주는 ‘파트 B’로 나뉜다. 이것이 메디케어의 기본 골격이고 이를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전국 어디에서나 원하는 의사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PPO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많지만 전혀 다른 뜻이다.



### 메디케어

65세 이상 미국 시민·영주권자에게 제공되는 연방정부 시니어 건강 보험.

**파트 A**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거나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있으면 무료

**파트 B** 무료로 파트 A를 받는다면 보험료를 내고 가입할 수 있다

### 오리지널 메디케어

65세 생일 달 전후 3개월씩 7개월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파트 C)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

### ▶파트 A

파트 A는 10년 이상 근로 기록이 있거나 배우자의 근로 기록이 있다면 무료로 제공된다. 그동안 열심히 세금 낸 돈으로 혜택을 받는 것이다. 만약 10년 40 크레딧이 없다면 돈을 내고 구입하면 된다. 크레딧이 전혀 없거나 30 크레딧 미만이라면 보험료는 월 471달러이다.

일했다고 해도 40 크레딧이 안되고 30 크레딧은 넘는다면 259달러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파트 B

무료로 파트 A를 받는다면 보험료를 내고 파트 B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올해 기준으로 148.50달러다. 만약 돈을 내고 파트 A에 가입했다면 65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5년 연속 미국에 살았어야 가입할 수 있다.

### 오리지널 메디케어

65세 생일 달 전후 3개월씩 7개월 동안 메디케어에 가입해야 한다. 파트 A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이므로 자동으로 가입되지만 파트 B는 반드시 메디케어에 온라인으로 또는 전화, 방문 등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소셜연금을 받고 있으면 자동으로 카드가 날아온다.

가입 절차를 마치면 소셜시큐리티국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메디케어 카드를 받는다. 카드에는 성명과 메디케어 번호, 그리고 ‘파트 A’와 ‘파트 B’ 혜택 개시일자가 표시돼 있다.

카드에 적혀 있는 파트 A와 파트 B를 정부에서 주는 원래 보험이라는 뜻으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한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정부에서 커버해 주지 않는 20%의 의료비용과 높은 디덕터

블, 코페이먼트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경비 부담이 매우 크다. 이를 대신 내주는 보험이 있기는 하다. 메디케어 보충보험(supplement insurance), 즉 메디갭이라는 보험을 개인 회사로부터 별도 구입하면 되는데 65세에 가입하면 약 170달러 안팎으로 생각하면 된다.

여기에 약 처방전(파트 D) 플랜을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하지 않고 63일 이상 처방전 보험이 없다면 나중에 가입할 때 전국 월평균 처방전 보험료(2021년 33.06달러)의 1%씩 가입하지 않은 달만큼 계산해 평생 보험료에 가산한다.

일반인이 오리지널 메디케어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경비 부담 때문이다. 또 메디케어 오남용으로 인한 재원 누수가 심해지자 1972년 의회는 일반 건강보험회사들이 오리지널 메디케어와 파트 D까지 모두 커버해주는 ‘원 스톱’ 보험을 만들도록 승인했다. 이것이 ‘메디케어 어드벤처지’(medicare advantage)라고 부르는 ‘파트 C’다.

### 메디케어 어드벤처지(파트 C)

메디케어 파트 C는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일반 보험회사가 판매한다. 오리지널 파트 A와 파트 B에 파트 D까지 포함한 원스톱 보험이다. 또 오리지널 메디케어에서 제공하지 않는 치과, 침술, 교통, 안경, 보청기 등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한다.

특히 오리지널 메디케어보다 디덕터블, 코페이먼트도 매우 낮다. 그래서 요즘은 메디케어에 새롭게 합류하는 65세 가입자의 60%가 파트 C를 선택한다. 보험료는 경쟁이 심한 대도시 지역은 ‘0’ 또는 있어도 20~30달러에 불과하다.

파트 C는 가입자의 건강을 주치의가 관리해주는 HMO나 PPO와 같은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주치의의 승인을 받고 전문의나 병원을 가는 시스템이다. 어느 메디컬 그룹에 속한 주치의냐에 따라서 승인율이 달라진다. 메디컬 그룹 선택이 그래서 중요하다. 메디컬 그룹은 그룹 내 의사수, 리퍼럴 승인율, 메디컬 그룹의 규모를 주의롭게 파악하고 가입하면 좋다.

현재 한인사회에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가장 크며 소속 의사 수도 제일 많다. 또 리퍼럴 비율도 100%에 달한다. 또 미국내 7개 지역에 SMG라는 이름으로 메디컬 그룹을 운영하는 대단위 메디칼 그룹이다.

자넷김기자





# “양로병원 독방 비용 하루 290달러”

의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의 개선으로 장수를 누리는 사람들이 많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미래 인간의 기대 수명치는 다소 줄어들기는 하겠지만 2021년 미국인 수명은 78.7세이고 한국인은 이보다 많은 82.7세로 나타났다. 기대 수명은 2021년 태어난 신생아가 현재의 추세라면 얼마까지 살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런데 한국인의 건강 수명은 64.4세다. 결국 20년간량은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통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미국인들의 70%는 미래에 장기 간병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 투자사에 따르면 2020년 건강한 65세 부부가 은퇴 후 지출하게 되는 의료 비용은 29만5,000달러다. 여기에 장기 간병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 연방 보건후생부는 오늘 65세가 되는 사람이 장기 간병을 받게 될 가능성이 70%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현재 미국 양로시설의 평균 독방 비용은 8,821달러이고 집에서 간병을 받을 때는 4,576달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장기 간병이 필요할 때 비용 마련을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일 것이다. 자녀들에게 의지하기도 쉽지 않다. 또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간병 비용으로 사용하기도 어렵다.

연방정부의 메디케어는 장기 간병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극빈자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재산이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중산층 정도의 수입으로는 별도의 재정을 준비해 놓지 않는 한 장기 간병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모아둔 돈을 다 쓴 후에는 정부의 메디케이드를 이용해 간병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일반 미국인 노년층에 제공되는 메디케어는 단기간 간병비용만 커버해 준다. 예를 들어 수술했다면 회복하는 기간 중 최대 100일까지만 홈 헬스케어나 양로병원 비용을 내준다.

중산층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비용 마련 방법이 장기 간병 보험 가입이다. 장기간병보험은 집과 자동차를 제외하고 최소 15만~20만 달러의 자산이 있고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 장기 간병 보험료는 나이와 보험 회사 그리고 혜택 종류에 따라 부부 연간 2,500~8,000달러 정도로 보면 된다.

## 장기 간병비용 조달하기

65세 미국인 70% 장기 간병 필요할 것  
“장기 간병 보험, 생명보험 등 대안 찾아야”



장기 간병 비용은 주마다 모두 다르다. 물가가 비싼 주는 더 비쌀 것이고 저렴한 주에서는 간병비용도 줄어든다. 따라서 장기 간병이 필요하다면 저렴한 주를 찾아 이주하는 것도 비용 절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명보험 회사 ‘켄워스’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2020년 캘리포니아의 양로 보조 시설 비용은 월 평균 4,500달러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비용은 3,175달러에서 5,853달러로 나타났다. 또 홈 케어 비용은 시간당 27.98달러였다. 이에반해 양로병원의 평균 비용은 하루에 290달러로 나타나 연평균 10만5,850달러 나 된다.

### 장기 간병보험 가입하기

장기 간병 보험은 일반적으로 비싸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입할 수는 없다.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거나 기저 질환이 있다면 장기 간병 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

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해도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보험 회사가 보험료를 인상하면 보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황도 오게 된다. 이런 경우 결국 장기 간병을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장기 간병 보험의 기간은 보통 12개월 이상이다. 보험회사에서 1년 이상 5년까지 비용을 지불해 준다. 보험료는 성별과

나이, 또는 기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 그럼 보험금은 어떤 상황에서 지급될까. 보통 일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지급된다.

일상 생활을 ADL이라고 부르는데 세금 혜택을 보는 보험의 경우 ▷목욕 ▷옷 입기 ▷이동 ▷식사 ▷화장실 ▷배변 참기 등 6가지 ADL중에서 2가지가 어렵다면 보험금이 지불된다. 하지만 세금 혜택이 없는 보험은 보행을 추가해 7가지 ADL중 2가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보험금이 지불된다. 보험금 지불 방식은 월 또는 분기 별, 연간 등으로 구분된다.

장기 간병 보험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후 보험이 시작되는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는 일반 보험의 디덕터블과 같은 역할을 한다. 보통 30일, 60일, 또는 90일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어떤 보험 회사는 유예 기간 대신 디덕터블을 두기도 한다. 일정 금액을 가입자가 지불한 후 나머지 금액을 보험에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유예 기간은 간병을 받는 시간으로 계산한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일 유예 기간을 두는 보험에 가입했는데 주 3일간만 홈케어를 사용한다면 보험금이 지불되기 위해서는 30일이 아니라 10주, 즉 70일이 지나야 한다. 홈 케어 시간을 모두 합해 30일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금은 실제 지불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예를 들어 3년동안 하루 100달러를 지불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최대 지불금은 10만9,500달러가 된다(365일×3년×100일). 매일 이 금액이 지불된다면 보험금이 모두 지불되기까지 3년이 소요될 것이다. 하지만 홈케어 비용으로 매일 50달러만 지불된다면 보험금 지불 기간은 더 길어질 것이다.

장기 간병보험을 구입할 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인플레이션 비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음 가입할 때 약정 지불 금액에 인플레이션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물론 보험료는 비싸진다. 또 보험료는 고정적이지 않고 매년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하며 자격 있는 보험 에이전트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 기타 간병 보험 마련하기

#### ▷생명보험

요즘은 생명보험이나 어뉴이티(은퇴연금 보험)를 구입할 때 장기 간병 보험을 덤으로(옵션) 구입할 수 있다. 생명보험이 사망 보험금의 일부를 장기 간병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방식이다. 일단 장기 간병 보험금이 지불되면 그만큼 죽을 때 받는 보험금도 줄어들 것이다.

#### ▷주택 에퀴티 전환해 사용

일반적으로 리버스 모기로 알려진 홈 에퀴티 전환(HEC)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주택의 에퀴티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방식이다.





# SSA·SSI, 혼동하는 한인들 적지 않아

“나는 국민자로 분류돼 SSA를 받는다”  
“나는 평생 일해 낸 세금으로 SSI를 받는다” 두 명이 나눈 대화인데 맞는 말일까. 아니다. 둘 다 틀렸다.

한인만이 아니라 많은 미국인이 SSA와 SSI를 혼동한다. 특히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에 연금 신청을 하면서 SSA를 SSI로 잘못 말했다가 번거롭게 정정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런 혼동은 둘 다 소셜 시큐리티 사무국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간단히 정리하면 SSA는 당사자 또는 배우자가 평생 일을 해서 낸 세금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 연금 혜택이다. 이를 우리는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Social Security Benefit), 즉 소셜 연금이라고 부른다. 반면 SSI는 빈곤자에게 국민 세금으로 지급되는 생활 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다. 일한 적이 없어도 받을 수 있고 SSA를 받아도 수입이 낮으면 SSI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또 SSA는 연방 정부 건강보험인 메디케어가 제공되지만, SSI는 빈곤자이므로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 건강보험 혜택이 가능하다.

## SSA(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미국인 6명당 1명 이상에 해당하는 6,400만 명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을 받았다. 이 중 62세 노인은 5명당 4명이었다. 나머지 1/5은 소셜시큐리티 장애자 보험(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SSDI) 또는 사망자의 어린 자녀들이다.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을 받으려면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한다.

우선 미국에서 일하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다시 말해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한다. 그것도 10년 이상 세금을 내고 최소 40 크레딧을 쌓아야 한다. 1년에 쌓을 수 있는 크레딧은 4 크레딧이다. 그러나 돈을 많이 벌어야 크레딧을 쌓는 것은 아니다.

1 크레딧을 받으려면 2021년 기준으로 1,470달러 이상 과세 소득이 있어야 한다. 1년에 최고 4 크레딧까지 쌓아 올릴 수 있으므로 연간 과세 소득 5,880달러 이상만 벌면 된다. 그렇다고 더 이상 일을 해 돈을 벌 필요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로 크레딧은 단지 연방정부에서 주는 베니핏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지 연금 액수를 정해주는 것은 아니다. 연금 액수는 35년간 올린 과세 소득을 합해 월평균치를 내고 이를 토대로 기준표에 따라 계산된다.



세금을 내고 받는 정부 혜택

그러면 이렇게 적은 금액을 크레딧 기준으로 삼은 이유가 무엇일까. 1978년 크레딧 제도를 시작할 때 월수입이 작더라도 일을 해서 세금을 낸다면 혜택을 주겠다는 의도에서다. 놀고먹지 말고 일을 하라는 뜻일 것이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만 해도 크레딧을 쉽게 쌓아 올릴 수 있음으로 보수를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정식으로 세금을 내고 급여를 받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

▶배우자 연금, 사별 배우자 및 자녀 연금, 장애 연금

근로 기록이 40 크레딧 이상이 된다면 일



세금과 관계 없는 국민 구호 기금

하지 않았거나 수입이 작은 배우자도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최고 50%까지·본보 2월호 참조). 또 이혼했어도 1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했고 현재 결혼하지 않았다면 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배우자와 사별했다면 숨진 배우자의 근로 기록으로 생존자 연금(survivor benefit)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만이 아니라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지급 나이가 되지 않았어도 영구 장애로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일정 기준 이상만 갖추면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메디케어 혜택도 제공된다.

## SSA 받아도 수입 적다면 SSI 가능 SSI 받는데 수입 있다면 보고해야



정리한다면 소셜 시큐리티 베니핏은 임금이나 자영업자의 세금 보고 기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연방 정부 혜택이다. 배우자도 받을 수 있고 자녀들도 혜택이 가능하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서 소득세를 내면 연방정부는 이를 받아 채권에 투자하고 이를 다시 납세자에게 돌려준다. 이것이 소셜시큐리티 베니핏, 즉 소셜 연금이다.

## SSI(빈곤층 생활 보조금)

SSI는 근로 기록이 없어도 재정적 빈곤만 입증한다면 제공되는 일종의 구호기금이다. 만약 SSA를 받는다고 해도 그 금액이 매우 작다면 소셜시큐리티국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급해 준다. SSA와 SSI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SSI에는 여러 가지 신청 제약이 따른다. 1972년 의회는 장애인과 65세 이상의 무소득자를 위한 재정적 안전망으로 SSI를 만들었다. 시각장애 또는 장애 어린이와 성인인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SSI를 받아 생활할 수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여야 하고 수입이 낮고 재산이 적어야 한다. 또 65세 이상자도 소득이 매우 낮아 생활이 어렵고 가진 재산도 적다면 역시 소셜 시큐리티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정부는 SSI 지급을 결정할 때 수입과 재산정도를 중요한 잣대로 본다.

우선 수입은 독신 2,000달러, 부부 3,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으며 자동차 가격 역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장례비용 등 기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 재산 역시 SSI 자격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올해 기준으로 SSI 금액은 독신 794달러, 부부 1,191달러이다. 하지만 생활비가 비싼 주에서는 주 정부가 별도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는 개인에게 160.72달러를 추가 보조해 주므로 보조금은 954.72이고 부부에게는 407.14달러를 추가해 1,598.14달러를 지불해 준다. 하지만 애리조나, 노던마리아나 아일랜드, 미시시피,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 다코타는 추가 보조해주지 않는다. 이외 다른 주들은 추가 보조금을 지불한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추가 수입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소셜시큐리티국에 보고해야 한다. 자칫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SSI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호에 추가로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 장수는 유전인자보다 환경에 더 영향 받아

## 잘못된 장수 속설 5가지

노스캐롤라이나 샬럿에 사는 미국 최장수 여성 헤스터 포드는 115세다. 하도 오래 살아 기록조차 희미해 116세라는 말도 있다. 그러면 포드는 어떻게 백수를 넘기며 장수하고 있을까.

그녀는 지난해 8월 CBS 방송에 출연해 108세까지 병원한번 가지 않고 장수한 비결이 무엇이나는 질문에 “그냥 올바르게 살았다. 그게 전부다”라고 말했다. 포드의 말처럼 장수의 비결은 아무도 모른다. 다음은 건강 잡지 ‘퍼셉션’이 밝힌 잘못된 장수 속설 5가지다.

### 밝고 긍정적인 기질이 오래 산다?

낙관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해서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장수 연구’가 80년동안 1,500명 이상을 추적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쾌활하고 태평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오히려 일찍 죽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았을까. 신중하고 집요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더 오래 살았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라는 사고 방식을 가진 명량한 성격의 소유자는 나이에 따라 받아야 하는 건강 검진도 받지 않아 건강에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향이 높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우울하고 남은 여생에 대해 우려하며 살라는 말은 아니다. 웃음은 더할 수 없는 보약이다. ‘소문만복래’ ‘일소일소 일노일노’라는 말도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년에 매일 한차례 씩 웃으면 심장마비와 뇌졸중에 걸리는 비율이 훨씬 낮아진다.

결론적으로 항상 즐거운 삶을 살아가되 건강 관리에 더 신중하라는 뜻이다.

###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일찍 죽는다?

‘장수 연구’에 따르면 열심히 일을 하면 조기 사망율을 20~3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장일을 집에까지 가져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건강을 해친다.

일을 하면서 접하는 사회 생활과 정신적 자극은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 한 연구 보고서는 은퇴를 미루고 1년 더 일하는 건강한 사람은 사망 확

건강하게 일 하면 수명 연장돼  
음식, 공기, 물, 절주, 금연 5가지 준수해라



일러스트 유

률이 11% 낮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오래 살기 위해 일부러 돈을 벌며 일하라는 뜻은 아니다. 자원봉사를 한다거나 손주를 돌봐 주고 또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취미 활동을 하는 등의 사회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일리노이 ‘프리저전 메디컬 케어’의 케서린 존슨 전문의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 조상이 일찍 죽어서 나도 그럴 것이다?

유전 인자는 생각만큼 장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DNA가 장수에 주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다는 말이다.

한 연구 보고서는 부모 중 한명이 70세 이

상 살았다면 장수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존슨 전문의는 중요한 것은 유전 인자보다는 주변 환경과 생활 습관이라고 밝혔다. 이들 요인이 DNA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실제 과학자들이 12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건강한 체중 유지, 금연, 운동, 건강한 식 습관, 절주 등의 5가지 생활 습관이 50세의 기대수명치를 크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린스턴 장수 센터’의 데이비드 페인 박사는 질 좋은 건강 관리와 맑은 공기, 물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조언했다.

페인 박사는 유전적인 질환에 대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면 주치의와 상의해 정기 건강 검진을 받으면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나이가 들면 최악이다?

물론 나이가 든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부정적일 수 있다. 하지만 모두 나쁘게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장수 연구’는 나이가 든다는 점을 인정하는 사람은 나이를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평균 7.5세 더 산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암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건강 진단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듯 치료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어 관절이 뻣뻣해지거나 힘이 빠지는 느낌을 젊은 시절과 비교할 수는 없다.

나이가 들면 면역 반응도 낮아진다. 당연히 염증 치료가 늦어져 만성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심장병과 기타 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설탕 섭취를 줄이고 더 많은 운동을 하며 야외 활동을 늘린다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오메가 3가 풍부한 음식은 섭취한다면 몸 안의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존슨 박사는 권고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나이가 들면 다 그렇다고 얘기 했었지만 요즘은 더 이상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서 “충분히 우리의 신체 나이를 관리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 금연 등 나쁜 습관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고 늦은 것은 아니다. 분명 습관을 고치면 수명도 연장된다. 의학 전문지 ‘뉴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따르면 45~54세에 금연을 하는 사람은 계속 흡연하는 사람들보다 6년 더 산다고 밝혔다.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도 한번도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운동을 시작하면 수명이 늘어난다고 보고했다. 특히 퀴스랜드 대학이 4년간 진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매일 햇볕에 노출되는 사람은 피부 노화를 늦춘다는 것이다.

존슨 박사는 건강하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에 대한 신체적 손상을 한꺼번에 없앨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라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조언했다.



환자를 최고로 생각하고 치료하며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 메디칼 그룹!**

  
 2017·2018·2019·2020년  


---

  
**최우수 별 5개**  
**서울 메디칼 그룹**  


---

**BEST 4년 연속 선정**  
 환자 만족도 · 의료진의 진료 수준  


---



배우 이순재



**시니어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최적의 의료 시스템 - 메디케어 HMO**

미주 전국 9개 지역의 4200명 의사 선생님들께서  
시니어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치료하고 있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LA 지역 213.389.0077  
 OC 지역 714.367.6867



# 보험거래소 '실버' 플랜 가입자 적용

Cover story 오바마케어 보조금 확대 1면에서 계속

## 1조9,000억 규모 '미국 구호 플랜' (ARP) 즉시 발효 법인세 올리고 40만달러 이상 고세율로 재원 확보 예상

조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전 국민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ACA)에 대한 보험료 보조금을 대폭 늘렸다. 연방 빈곤선 150% 이하의 소득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또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에게 한시적으로 제공되는 일명 '코브라' (COBRA) 보험료도 6개월간 면제해주는 파격적인 의료 정책을 시작했다. 특히 2020년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5월 17일까지 연장된 개인 세금 보고에서 1만200달러까지 공제해 준다.

따라서 저소득 실업수당 수령자는 더 많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 발표한 1조9,000억 규모의 경기 부양책 '미국 구호 플랜' (American Rescue Plan·ARP)에 포함돼 즉시 발효됐다.

그러나 이 법은 2022년까지 2년간만 지속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구적으로 보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공화당과의 절충안 여부에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 보험료 보조금 확대

바이든의 경기 부양책(ARP)은 연방 빈곤선의 4배(400%) 이상의 소득자들에게도 보조금을 지불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수입 계층의 보험료 보조금도 대폭 확대했다.

정부 운영 보험 거래소란 연방 정부 또는 각 주 정부가 오바마케어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일반 보험사들의 건강 보험을 판매하는 인터넷 거래 사이트다. 현재 캘리포니아 (Coveredca.com)를 비롯해 15개 주는 자체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주는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또는 연방정부 운영 거래소(Healthcare.gov)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수입에 따라 보험료 및 기타 의료 경비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ACA 시작 당시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했지만 연방 대법원이 2018년 위헌 판정을 내리면서 자발적인 가입으로 바뀌었다. 다만 캘리포니아를 비롯

해 워싱턴 DC, 매사추세츠(2006년부터), 뉴저지, 로드 아일랜드, 버몬트 등 5개 주는 무보험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계속 실시하고 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은 이 거래소를 통해 판매되는 '실버' (Silver)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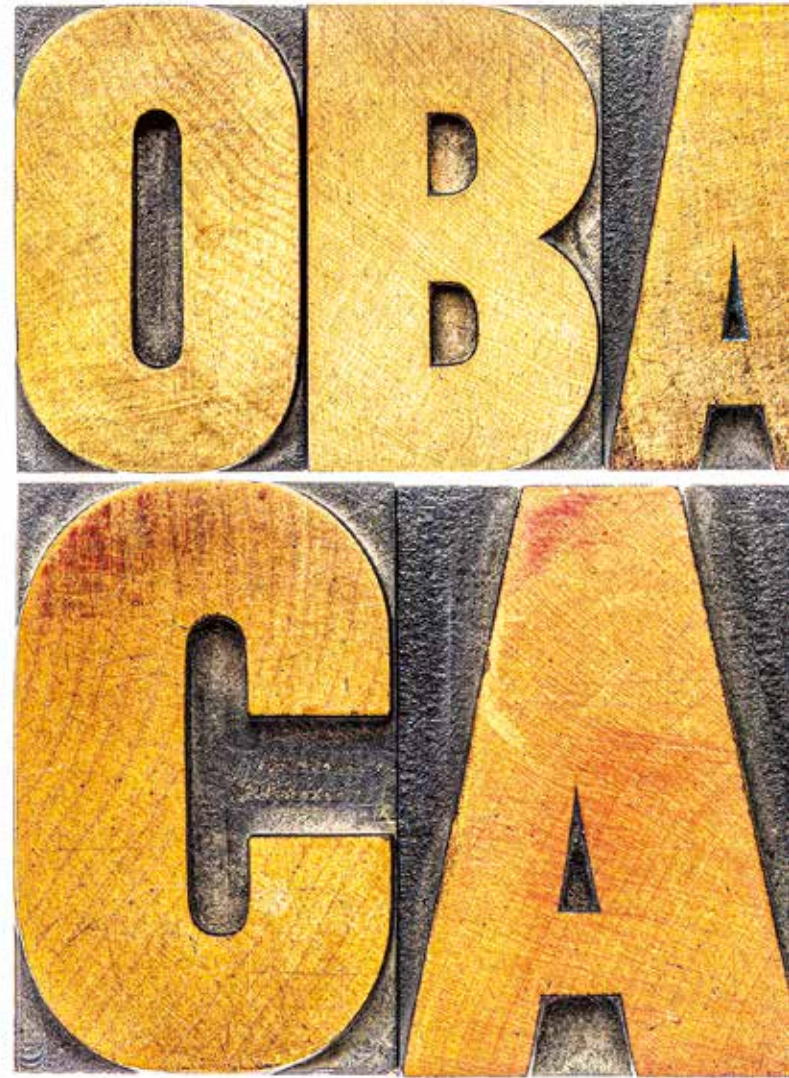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보험은 보험료와 디덕터블, 코페이먼트 등의 의료 비용 지불 정도에 따라 '브론즈' (Bronze·동), '실버' (Silver·은), '골드' (Gold·금), '플래티늄' (Platinum) 등 4가지로 구분된다. 거래소에 들어온 보험회사는 이 4가지 보험 모델을 기준으로 각자 자신의 보험을 내놓고 판매한다. 보험료는 등급이 높을수록 높고 혜택도 많아지며 정부가 권장하는 가장 보편적인 등급은 '실버' 플랜이다.

▷빈곤선 150%까지 무료 보험료  
연방 빈곤선 이상 150%까지의 소득계층이 오바마케어의 가장 보편적인 보험인 '실버' 플랜에 가입한다면 보험료는 '0'이다. 또 디덕터블도 훨씬 줄어들었다. 이전에는 이 등급 소득 계층은 보조금을 받더라도 보험료를 소액 지불해야 했다.

일반적으로 연방 빈곤선 100% 이상의 소득을 가진 가정은 수입의 2.07%를 보험료로 낸다(2021년 연 보험료 264달러). 물론 캘리포니아나 일부 주는 연방 빈곤선 상한선의 138%까지 끌어 올려 그 이하는 메디케이드(캘리포니아는 메디칼)를 제공하고 그 이상부터 150%까지는 소득의 4.14%까지 보험료를 내게 했다. 1년에 792달러 정도다(한 달 66달러). 나머지 보험료는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해 준다. 특히 실버 플랜에 가입한 사람들의 자기 부담 디덕터블도 평균 177달러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런데 새 법에 따라 FPL 150% 이하 수입의 저소득층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도 없고 디덕터블도 거의 없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빈곤선 400%까지의 소득자들도 현재 받는 보험료 보조보다도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아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FPL의 200% 수입 이라면 올해 연 1,644달러를 보험료로 내



COBRA 보험료 6개월 면제 파격 정책 시작  
5월 15일까지 오바마케어 가입하면 혜택  
연방 빈곤선 200% 소득자 보험료 연 510달러  
400% 이상 소득자 25%에서 8.5%로 인하

야 하지만 새 법에 따라 보험료는 510달러를 뚝 떨어진다. 보조금 한계 수입인 400% 수입자도 실버 플랜의 보험료가 연 5,017달러였지만 4,338달러로 줄어들었다.

▷빈곤선 400% 이상 수입자도 보조  
기존 오바마케어로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 수입자는 보험거래소의 정부 보험료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새 법에 따라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수입의 8.5%까지만 보험료로 내게 된다. 이럴 경우 젊은 보험가입자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지만 나이로 인해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든 고소득자는 대단히 큰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수입

이 연방 빈곤선 401%의 24세 젊은이가 보험 거래소를 통해 실버 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연 보험료가 수입의 8.5%를 넘지 않는다. 하지만 동일한 수입의 64세는 수입의 거의 25%는 보험료로 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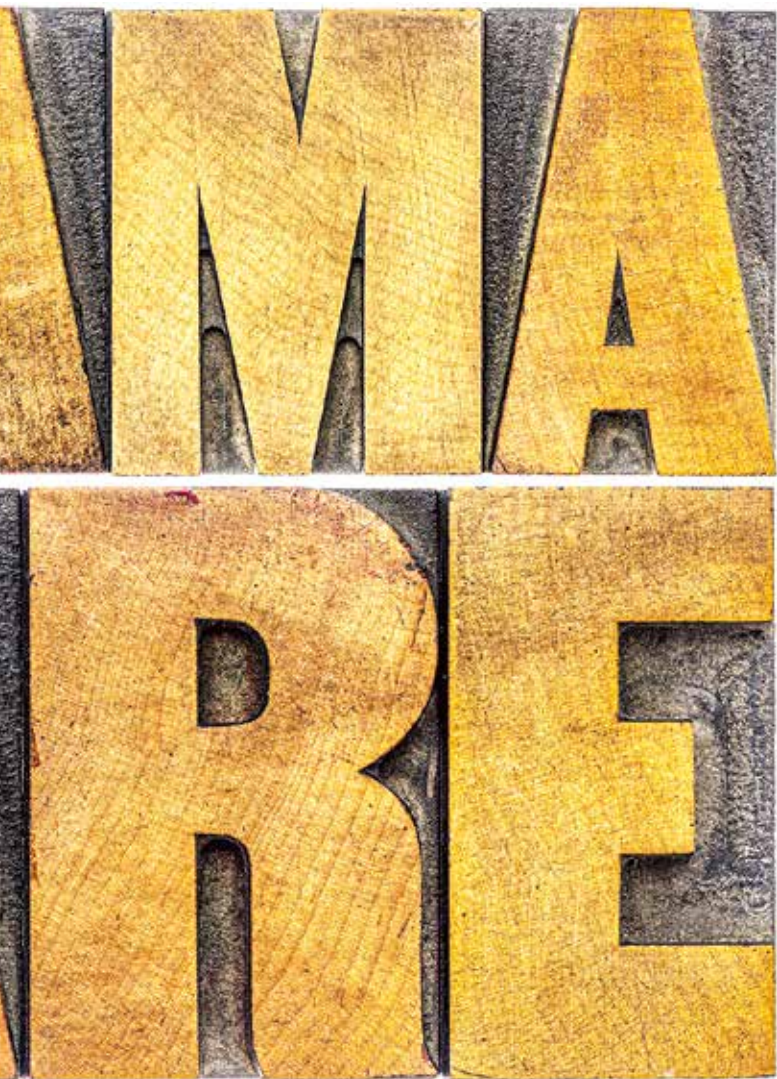
이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수입이 연방 빈곤선 400%를 넘기 때문에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런 사람들은 보험 거래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비 분담 보험 조합과 같은 단기 보험에 가입했다. 따라서 새 법에 따라 보험료 상한선이 적용되면 다시 정부 보험 거래소로 돌아와 포괄적이고도 효율적인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의회는 내다봤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보



<UI>

# 실업수당 받아도 메디케이드 자격 영향 없어



실직 수당받으면 부부공동 세금보고해야 보조금 수입 초과해도 보조금 되돌려주지 않아도 돼

실직자 COBRA 보험료 4~9월 100% 보조 비자발적 퇴사 또는 파트타임에만 해당

▶ 보험료 보조 확대는 2021년과 2022년에만 적용  
이 법은 올해와 2022년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올해 이미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내년도 2021년 세금 보고 때 세금 환부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체 주 정부 보험 거래소가 마련돼 있지 않은 주의 거주자들은 'HealthCare.gov'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다. 이곳을 통해 보험에 가입했다면 올해

금급 연장된 5월 15일까지 다른 보험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다. 즉시 보험을 바꾸고 새 보조금을 받아 페이먼트를 낮출 수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일부 주에서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5월 15일 연장 기간을 이용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실직자 건강 보험료 보조금 확대**  
2021년 실직 보험(UI)을 받고 있거나 지급 승인이 난 사람들에게도 보험거래소 보조금을 확대 제공한다.

ARP는 주 정부로부터 실직 보험 수당을 받는 사람들에게 매달 300달러씩 추가로 지급하는 연방 보조금을 올해 9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여기에서 주목해

야 할 부분이 추가 지급 보조금이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건강보험 보조 프로그램(CHIP) 자격에 영향을 주느냐이다. 연방 의회는 실직 수당 추가 보조금을 극빈자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등 건강보험 자격 기준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보조금을 수입으로 계산하지 않겠다는 말이다. 2021년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 거래소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연방 정부 빈곤선 133% 수입을 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정부가 2021년 거래소 보험료 자격 결정과 의료비용 보조금 자격 결정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2021년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은 올해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없고 의료비용도 보조받는다.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은 2021년 '적용 대상 납세자' (applicable taxpayers)로 분류된다. 일반적으로 오바마케어(ACA)에 따르면 정부 보험 거래소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용 대상 납세자'에 포함돼야 한다.

'적용 대상 납세자'는 보험료 택스 크레딧(Premium Tax Credit·PTC)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격은 소득이 연방 빈곤선 100%에서 400%까지로 오바마케어 보험 거래소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와 디덕터블 등의 진료비용을 보조받는다. 다만 누구의 부양가족이 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만약 납세자가 연말에 결혼했다면 부부 공동 세금 보고를 해야 '적용 대상 납세자'로 보조금을 받는다.

그런데 새 건강법 ARP에 따라 2021년에만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은 '적용대상 납세자'로 분류된다. 오바마케어는 극빈자 보조용 건강보험을 연방 빈곤선 최대 138%까지 올려 확대했다. 하지만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캔사스, 위스콘신 등 12개 주는 연방 빈곤선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소득자에 한해서만 메디케이드를 제공했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 거래소를 이용해 보험에 가입해 보조금을 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메디케이드 대상도 되지 못했던 무보험자들이 이들 주에서 속출했었다. 이번 ARP는 실업 수당을 받는 사람을 '적용 대상 납세자'로 분류하면서 건강보험 보조금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은 2021년에만 적용된다.

실직 수당을 받는 사람들이 보험거래소로부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타 충족해야 할 사항도 있다. 특히 기혼자는 공

동 세금 보고를 해야만 보조금을 받는다. 결혼했지만 부부 별도로 세금 보고한다면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정 폭력 피해자는 예외가 적용된다. 또 실직 수당을 받으면서 계속 직장 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 2020년 보험료 택스 크레딧 규정 면제

보험료 보조금은 해당 연도의 연 예상 수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그 후 세금 보고를 할 때 실제 수입이 예상 수입보다 적다면 보험료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실제 수입이 더 많았다면 초과한 보험료 택스 크레딧을 부분 또는 모두를 정부에 되돌려줘야 한다. 되돌려줘야 하는 돈은 하지만 상한선을 둔다. 그러나 실제 수입이 연방 빈곤선의 400%를 넘을 때는 한 해 동안 받았던 택스 크레딧을 모두 토해내야 했다.

그런데 2020년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고 심각한 상태로까지 치달았던 점을 고려해 정부는 올해 초과 보험료 택스 크레딧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규정을 면제해 줬다. 연방 국세청(IRS)은 ARP가 통과되기 이전에 이미 택스 크레딧 즉, APTC(advance payments of the premium tax credit) 조정과 반환에 필요한 2020년 택스폼과 스케줄을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IRS는 이미 2020년 택스 리턴을 마친 납세자에게는 환급해 주고 또 아직 보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크레딧을 조정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2021년 한시적 COBRA 보험료 보조

새 ARP는 2021년 6개월 동안만 COBRA 보험료를 보조해 준다. 보조금은 COBRA 월 보험료의 100%다.

COBRA는 직장을 자발적으로 또는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파트타임, 이직, 사망 및 기타 일생의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직장인과 가족에게 직장에 다닐 때 가입했던 직장 보험을 일정 기간 계속해서 제공해 주는 법이다. 보통 보험료의 102%까지 직장의 보조 없이 개인이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실직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아예 직장 보험을 포기하고 무보험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속출한다. COBRA는 일반적으로 20인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그룹 건강 보험이 있을 때 적용된다. 새 ARP는 전 직장에서 COBRA 보험료를 전액 지불해 주고 연방 정부가 그 비용을 고용주에게 환불해 주도록 했다.



# 보험료 보조 확대 2021년 1월부터 소급적용

## 1.9조 달러 부양안, 건강보험에 미치는 영향 일문일답

다음은 이번 ARP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강보험 보조금 확대에 대한 궁금증 일문일답이다.

-이미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보험료 보조금을 받고 있다. 영향이 있나?

있다.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을 받는 대부분의 가입자는 새 법에 따라 보조금을 더 받는다.

예를들어 연방빈곤선 수입의 150%(개인 1만9,320달러, 4인가족 3만9,750달러)까지의 가입자들이 오바마케어의 대표적인 플랜인 '실버' 플랜에 가입한다면 더는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150% 이하의 소득 계층은 소득의 4.14%까지 보험료를 내게 돼 있다.

만약 연 소득 1만9,320달러의 21세 가입자가 실버 플랜에 가입하면 3,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지만 실버 플랜의 보험료가 4,300달러라면 4,300달러의 보조금을 전액 받는다는 말이다.

연 소득이 2만5,760달러 또는 4인 가족 5만3,000달러까지의 소득자는 보험료를

## 64세 독신 58,000달러 소득자 연 보험료 4,950달러 추가 보조금은 택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아

수입의 최고 6.52%까지 내야 했지만 2%까지로 줄어들었다. 또 빈곤선 400%를 넘는 수입자(개인 5만1,520달러, 4인 가족 120만6,000달러)의 보험료는 8.5%까지로 한계를 정했다. 더 이상의 보험료를 인상할 수 없다.

-400% 이상 수입으로 이전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어떤 영향이 있나.

행운이다. 기존의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 400% 이상이면 전혀 보조금을 받지 못했다. 401%의 수입이어도 보험 비용 보조가 전혀 없었다. 주민 옹호 단체인 헬스 어세스 캘리포니아의 앤소니 라이트 회장은 "소득의 10%, 20%, 30%까지 보험료를 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며 환영했다. 소득의 8.5% 보험료 규정은 소득과 관계없이 실시된다. 다시 말해 보험사가 더 이상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이가 많은 고소득자는 젊은 세대보다 보험료가 훨씬 비싸다. 결국 수입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 내야 했다. 아마 이번 새

법으로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64세의 독신자가 5만8,000달러의 연 소득을 올린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보험에 가입한다면 연 1만2,900달러를 내야 했다. 그러나 새 법에 따라 7,950달러의 보조를 받아 실제 내는 보험료는 4,950달러로 푹 떨어지는 것으로 의회에 산국은 추산했다.

하지만 모든 고소득자가 똑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역의 실버 플랜 보험료가 수입의 8.5% 이상 되지 않는다면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까  
미국인 2,9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에 따르면 현재 보험에 가입한 1,400만 명의 대부분이 보조금을 받고 있고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1,500만 명이 정부 거래소를 이용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보조금 자격이 되지 않아 오바마케어 플랜을 구입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구입했다. 바꿀 수 있나

바꿀 수는 있다. 하지만 이미 한해가 시작됐다. 그동안 보험이 요구하는 디덕터블을 일부 내고 있었다면 이 디덕터블을 포기해야 한다. 보조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보험에서 정부 거래소의 보험으로 바꿀 가치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카이저 패밀리 재단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 특히 400% 이상의 수입을 갖는 가정은 아마도 바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무보험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얼마나 많은 무보험자들이 보조금을 받으며 가입할 지 불확실하다. 다만 의회 예산국은 새 보조금 시스템으로 인해 170만

명이 추가로 정부 보험 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종류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으로 나타났다.

-보조금을 확대했던 주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꾸준히 주 정부 보조금을 늘려나갔다. 캘리포니아는 저소득층 가입자의 보조금을 늘리고 빈곤선 상한 400%~600% 소득층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방 플랜이 훨씬 관대하다.

-나에게 보조금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각 개인의 수입 정도, 나이, 거주 지역의 보험료 등에 따라 각자 다른 혜택을 볼 것이다. 연방정부 보험 온라인 거래소 'HealthCare.gov', 캘리포니아 보험 거래소 'CoveredCa.com' 등에서 계산해 볼 수 있다. 자격은 미국 시민권자와 합법 체류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직장 건강보험도 없으며 메디케이드 또는 어린이 건강보험 프로그램 등 공공 프로그램의 자격이 없는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언제부터 시작되나

새 보조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미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자동 계산돼 크레딧을 받을 것이다.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5월 15일까지 연장된 가입 기간을 이용하면 새 법에 따른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다.

-총비용은 얼마나 드나

2년간의 프로그램으로 총 342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연방 의회예산국은 추산했다.

-영구적인 법이 아닌가

2021년과 2022년 2년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영구 법안을 모색 중이지만 공화당의 상당한 반대가 예상된다.

웰빙 가이드

US 메트로 뉴스

OH MY GOSH  
정보가 많아서 좋아



광고·구독·배달

(323)620-6717

usmetronews@gmail.com

## 개인 세금 보고 5월 17일까지 연장

세금 마감일이 4월15일에서 5월17일로 연장됐다.

연방국세청(IRS)의 척 레틱 청장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IRS는 납세자들에게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유를 설명했다. IRS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4868폼을 작성해 10월15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지만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장은 연방 세금 보고에만 적용되므로 거주 주의 세금 보고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연장 조치를 따르며 일부 주는 11월까지 연장 해주고 있다. 그러나 분기별로 예상 세금을 내는 경우는 4월15일까지 보고를 해야 한다.



##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 활용하세요”

<Saver's Tax Credit>



세이버스 크레딧 비율 (단위: 달러)		2020년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20%	적립금의 10%
부부 공동 세금 ▶	AGI: 3만9500 이하	3만9501~4만3000	4만3001~6만5000	
가장 ▶	AGI: 2만9625 이하	2만9250~3만1875	3만1876~4만8750	
독신·기타 세금 ▶	AGI: 1만9,500 이하	1만9501~2만1250	2만1251~3만2,500	

세이버스 크레딧 비율 (단위: 달러)		2021년		
		적립금의 50%	적립금의 20%	적립금의 10%
부부 공동 세금 ▶	AGI: 3만9500 이하	3만9501~4만3000	4만3001~6만6000	
가장 ▶	AGI: 2만9625 이하	2만9626~3만2250	3만2251~4만9500	
독신·기타 세금 ▶	AGI: 1만9750 이하	1만9751~2만1500	2만1501~3만3000	

돈을 조금밖에 벌지 못해 은퇴 연금에 가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하소연하는 한인들이 많다. 수입이 적으니 은퇴 계획을 세운다는 자체가 사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다.

돈을 적게 버는 한인들은 오히려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저소득층 근로자가 은퇴 플랜을 개설해 돈을 적립하면 연방정부는 적립금에 대해 세금 공제해주고 또 적립금 일부를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준다. 중산층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Saver's Tax Credit)

내용이 조금 복잡할 수 있다. 하지만 주의를 기울여 읽어보면 왜 은퇴 플랜을 개설하지 않았나 후회할 것이다.

내용은 이렇다. 소득이 적은 사람이 미래를 대비해 은퇴 플랜에 돈을 적립했다면 적립금의 일부를 세금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적립금은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동시에 일부는 되돌려 받는 이중 혜택을 베푸는 제도다. 이를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Saver's Tax Credit)이라고 부른다.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적립플랜 401(k) 등에 가입하고 있을 수도 있고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연금 플랜에 가입했을 수도 있다. 특히 세금 보고를 할 때 과세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보고 마감일 전까지 IRA에 돈을 적립하면 그만큼 과세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저소득 근로자는 과세 소득을 줄일 수 있는 세금 공제를 받는 동시에 적

### 저소득자, 은퇴 플랜 적립하면 2,000달러까지 트레딧 부부 6만6,000달러 이하면 수입 따라 혜택 세금 공제받고 크레딧 받는 ‘1석2조’ 효과

립한 돈의 일부를 택스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참고로 세금 공제와 택스 크레딧은 다르다. 세금 공제는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 소득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지만 택스 크레딧은 실제 내야 하는 세金的 금액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깡 먹고 알 먹고’ 식이다. 세금 공제도 받고 세금도 돌려받는다. 은퇴 플랜에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IRA나 401(k)과 같은 은퇴 플랜에 적립했다면 세금 보고 때 수입에 따라 최고 1,000달러(부부는 2,000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 받는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저소득층 또는 중산층이라도 하층 수입에 속해 있는 가난한 근로자여야 한다.

####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우선 18세 이상 성인이어야 한다. 학생도 가능하지만 해당 연도에 5개월 이상 풀타임 학생으로 공부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기술, 무역, 기계 공학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받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다면 역시 세이버스 크레딧 신청을 할 수 없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의 세금 보고서에 디펜던트로 되어 있는 학생도 제외된다.

또 IRA나 401(k)등 은퇴 플랜에 돈을 적립하고 무엇보다 매년 IRS가 정해 놓은

‘조정 후 총수입’, 즉 AGI 기준선 이하 근로자(자영업자 포함)여야 한다.

#### ▶AGI 수입 상한선

-부부 공동 세금 보고자는 2021년 AGI가 6만6,000달러 이하야 한다. 2020년 세금 보고를 한다면 2020년 AGI는 6만5,000달러 이하야.

-가장의 경우는 2021년 AGI 4만9,500달러 이하, 2020년은 4만8,750달러 이하야.

-독신 등 기타 세금 보고자라면 2021년 3만3,000달러 이하, 2020년 AGI는 3만2,500달러 이하야.

그렇다고 기준선 이하 수입이 동일한 금액으로 택스 크레딧을 받는 것은 아니다. 수입 기준에 따라 적립금의 50%, 20%, 10% 택스 크레딧을 받지만 최고 금액은 독신 1,000달러, 부부 2,000달러이다.

#### ▶혜택을 받는 은퇴 플랜

세이버스 택스 크레딧은 전통 및 로스 IRA, 401(k), 심플 IRA, SARSEP, 403(b), 457(b)등 은퇴 플랜에 적립할 경우 혜택을 받는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장애자나 그의 가족들이 가입할 수 있는 ‘ABLE’ 구좌 가입자에게로 확대됐다. 하지만 롤 오버한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 새로 돈을 적립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특히 AGI 상한선 이하의 적립금 모두가 택스 크레딧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개인 최고 2,000달러, 부부 공동 4,000달러

적립금까지만 택스 크레딧 계산에 적용된다.

#### ▶다음의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영희 씨는 독신으로 지난해 1만9,000달러를 벌었고 그중 1,000달러를 은퇴 플랜에 적립했다. 영희 씨의 택스 크레딧은 적립금의 50%에 해당하는 500달러다. 그런데 영희 씨가 5,000달러를 적립했다면 택스 크레딧은 1,000달러다. 영희 씨가 5,000달러를 적립했다고 해서 50%에 해당하는 2,500달러를 받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영희 씨가 독신이기 때문에 독신자의 택스 크레딧 계산치 한계가 2,000달러이므로 2,000달러의 50%만 택스 크레딧을 돌려받는 것이다.

####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철수 씨는 기혼자로 2020년 3만8,000달러를 벌었고 전통 IRA에 1,000달러를 적립했다. 철수 씨의 과세 소득은 3만8,000달러에서 1,000달러를 공제한 3만7,000달러이다. 또 철수 씨는 적립금의 50%에 해당하는 500달러를 택스 크레딧으로 되돌려받게 된다. 2중 혜택을 받는 것이다.

#### 평균 혜택 187달러

트랜스 아메리카 은퇴 연구 센터가 2018년 IR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평균 택스 크레딧은 187달러다.

또 대부분 근로자는 이를 잘 알지 못한다. 2020년 트랜스 아메리카가 사기업 근로자 5,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만이 세이버스 크레딧에 대해 알고 있었다. 세대별로는 밀레니얼 세대(49%)가 제너레이션X(40%)나 베이비 부머(34%)보다 잘 인식하고 있었다.



# 일찍 연금 받는데 근로 소득 있다면

1만8960달러 이상이면 초과분 2달러당 1달러 연금 공제  
제해진 금액은 만기 은퇴 연령 지나면 연금에 가산돼  
소셜시큐리티국, “연금 신청하면 은퇴자로 간주” 때문

일하면서 동시에 소셜시큐리 베니핏(이하 소셜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도 타고 돈도 번다면 더할 수 없이 좋은 일이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번다면 원래 예정돼 있던 소셜 연금을 전액 받지 못한다. 일정 금액이 공제돼 지급되기 때문이다.

소셜 시큐리티국은 일단 소셜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은퇴한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을 신청해 받는다면 조기 은퇴로 본다. 따라서 나이 젊은 조기 은퇴자가 펄펄 날면서 돈을 번다면 당연히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는 일정 한계를 두고 이상 버는 돈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로 연금에서 공제한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이 지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연금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공제된 연금이 국고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연방 정부가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면 다시 되돌려준다. 그러나 자녀나 장애인을 키우는 사별 배우자가 일찍 사별 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을 받으면서 일했다가 연금이 깎였다면 그 깎인 금액은 만기 은퇴 연령이 되어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

만일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을 받거나 극빈자 생활 보조금(SSI)을 받을 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반드시 일해서 번 모든 수입은 소셜시큐리티국에 보고돼야 한다. 또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외국에서 일해 돈을 버는 경우에도 소셜시큐리티국에 알려야 한다.

### 소셜 연금을 받으면서 얼마나 더 돈을 벌 수 있을까

올해 62세가 되는 1959년 1월 2일~1960년 1월 1일생의 만기 은퇴 연령은 66세 10개월이다.

만약 이들이 만기 은퇴 연령이 된 이후에 일을 한다면 수입과는 관계없이 원래 받아야 하는 연금을 모두 받는다. 하지만 만기 은퇴 연령 이전에 연금도 받고 일을 해 돈을 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2021년 아직 만기 은퇴 연령이 되지 않

았는데 일을 해 번 수입이 1만8,960달러를 넘으면 초과된 금액 2달러당 1달러씩 소셜 연금에서 공제된다. 또 2021년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생일달 이전까지 5만520달러 이상의 근로 소득이 있다면 초과 되는 수입에 대해서는 3달러당 1달러가 소셜 연금에서 제해져 지급된다.

### 예를 들어 보자

지난 1월 62세가 되는 1959년생 영희 씨가 소셜 연금을 신청해 한 달에 600달러(연 7,200달러)를 받는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영희 씨가 일을 계속해서 2만3,920달러를 벌 계획이라고 보고한다면 정부에서 정한 1만8,960달러의 수입 한계선을 4,960달러 초과하게 된다. 그러면 소셜시큐리티국은 초과분 4,960달러의 절반인 2,480달러를

소셜 연금에서 공제해 보관해 둔다. 초과분 2달러당 1달러씩 공제하는 규정 때문이다.

###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소셜시큐리티국은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영희 씨에게 소셜 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6월부터 연말까지 매달 600달러씩 지급해 준다. 원래 받아야 하는 돈을 다 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어 소셜시큐리티국은 지급하지 않은 2021년 5월분 520달러를 2022년에 지급해 준다.

### ▷정리해 보자

영희 씨의 연금은 월 600달러이므로 5개월간 받지 못하는 돈은 3,000달러다. 하지만 공제액은 2,480달러이므로 정부가 공제해 보관하고 있는 3,000달러에서 2,480달러를 빼면 520달러가 된다. 따라서 정부

는 520달러를 영희 씨에게 이듬해 되돌려 준다는 것이다. 그러면 만약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에는 어떻게 될까.

소셜 연금이 600불인 철수 씨가 올해(2021년) 11월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5만1,540달러를 번다고 보고를 한다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 수입 한계 5만520달러를 1,020달러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초과되는 수입 한계 1,020달러에 대한 3달러당 1달러, 즉 340달러가 공제돼 연금이 지급된다. 이를 위해 소셜시큐리티국은 2021년 1월분 소셜 연금 전체를 철수 씨에게 지불하지 않고 보관해 두고 2월부터 연금 600달러를 지급해 준다. 2021년 1월 보류된 연금 260달러는 2022년 다시 지불된다.

수입과 연금 비교표 (단위: 달러)  
※2021년 예상 수입과 월 연금을 근거로 한 실제 지급 소셜 연금

수입	월 소셜 연금	실제 받는 연금(2021년)
18,960 이하	700	8,400
20,000	700	7,880
22,000	700	6,880
18,960 이하	900	10,800
20,000	900	10,280
22,000	900	9,280
18,960 이하	1,100	13,200
20,000	1,100	12,680
22,000	1,100	11,680



그래픽 유



# 소셜 연금에서 일정액 떼고 지급한다

공제 규정은 근로소득에만 적용돼  
 펜션, 이자, 자본이득, 어뉴이티 등은 소득과 무관  
 은퇴 연령 지나면 근로 소득 관계없이 전액 지급  
 보너스, 커미션은 근로 소득에 포함돼

**소셜 연금에 영향을 주는 수입은?**  
 직장에 다니다면 임금만 소셜시큐리티 수입 한계에 영향을 준다. 자영업  
 을 한다면 자영업으로 얻는 순 수입만 계  
 산된다. 하지만 기타 정부 배니핏, 투자 수  
 입, 이자, 펜션, 어뉴이티(은퇴연금보험),  
 자산매각소득은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 직장인 총 임금속에 펜션이나  
 401(k)등 은퇴 플랜에 고용주가 적립하는  
 매칭 펀드가 포함돼 있다면 그 적립금은  
 수입으로 계산돼 영향을 줄 수 있다. 유의  
 할 점은 수입은 지급을 기준으로 하지 않  
 고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이해가 잘 안될  
 것이다.

우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올해 수입

에만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소셜시큐리  
 티국은 규정에 따라 은퇴한 해는 수입에  
 관계없이 전액을 지불해 준다.

2021년 만기 은퇴 연령이 되지 않은 은  
 퇴자의 월 소득이 월 1,580달러 이하라면  
 완전히 은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보자**

영희 씨가 2021년 10월 30일 62세의 나이  
 로 은퇴한다. 영희 씨가 1월부터 10월까지  
 4만5,000달러를 벌게 되고 은퇴 연금을 받  
 는 11월부터는 파트타임 일을 하면서 월  
 500달러를 번다고 가정해 보자.

영희 씨의 수입이 이미 연 소득 한계치(1  
 만8,960달러)보다 많다고 해도 영희 씨는  
 11월과 12월 삭감 없이 소셜 연금을 전액

거나 큰 규모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경  
 우에는 은퇴하지 않은 것으로 소셜시큐리  
 티국은 판단한다.

**소득이 바뀌면 보고해야 하나**

소셜시큐리티국은 신청자가 말해주는 예  
 상 수입을 기준으로 2021년 소셜 연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만약 2021년 수입이 예  
 상과 다르다면 소셜시큐리티국에 즉시 알  
 려주는 것이 좋다.

만약 다른 가족들이 은퇴자의 근로 기  
 록을 근거로 연금을 받는다면 은퇴자의  
 은퇴 후 수입에 따라 가족들의 연금 액수  
 도 줄어든다. 또 배우자와 어린 자녀가 베  
 니핏을 받으면서 일을 한다면 수입에 따  
 라 그들의 연금도 달라진다. 정확한 수입  
 에 대한 추가 궁금증이 있다면 소셜시큐  
 리티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근로 수입 때문에 보관된 연금은 어떻게 되나**

근로 소득으로 인해 삭감돼 보관된 연금  
 은 어떻게 될까. 이 금액은 만기 은퇴연령  
 이 지난후부터 보관된 달수만큼 매달 추  
 가로 지급된다. 따라서 보관된 개월 수 만

일을 하는 은퇴자의 기록을 재확인한다.  
 만약 은퇴자의 근로 소득이 지난 35년중  
 에서 제일 적게 번 해의 수입보다 높다면  
 그해의 수입이 대체돼 연금은 다소 많아  
 지게 된다. 올라간 연금은 다음해 12월 소  
 급 적용돼 지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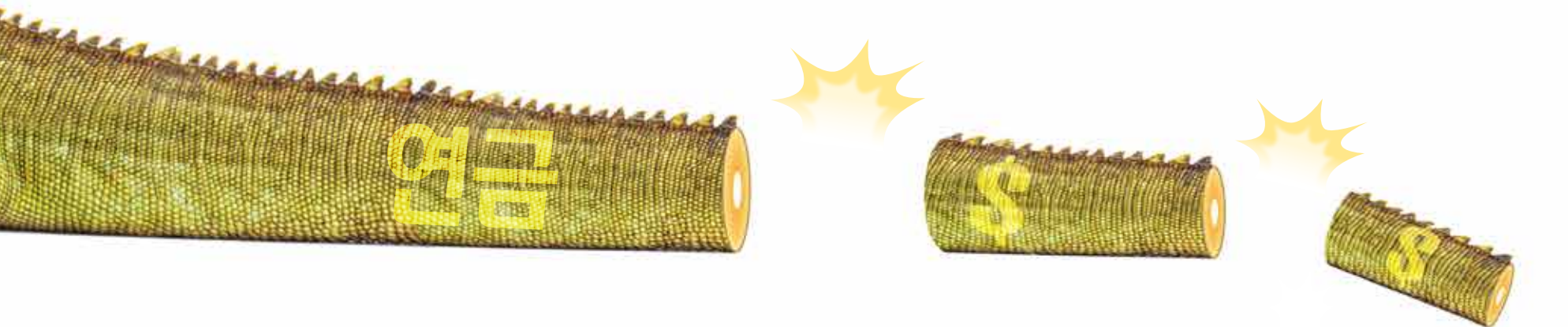
예를 들어, 2020년 수입으로 인해 소셜  
 연금이 올랐다면 인상된 금액은 2021년12  
 월 소급해서 지급 된다는 말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적 예**

길동 씨가 2021년 매달 소셜 연금을 800달  
 러씩 받는다. 1년에 9,600달러다.

길동 씨는 2021년 일을 해서 2만8,960달  
 러를 번다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수입한계  
 18,960달러를 초과한 1만 달러에 대해서  
 2달러당 1달러씩 공제해 길동 씨에게 연  
 9,600달러가 아닌 4,600달러만 지급해 준  
 다. (\$9,600 - \$5,000 = \$4,600).

조기 은퇴 소셜 연금이 800달러인 길동  
 씨가 2021년 8월 만기 은퇴 연령이 된다고  
 가정해 보자(연 9,600달러). 그런데 길동  
 씨가 2021년 일을 해서 6만3,000달러를 번  
 다. 하지만 길동 씨는 만기 은퇴 연령 이전  
 인 1월부터 7월까지 버는 돈은 5만2,638달  
 러다. 이런 경우 길동 씨의 7개월 소득은



을 올렸지만 실제 돈이 지급되는 것은 내  
 년이라고 해도 수입은 올해로 계산된다는  
 의미다. 돈으로 계산돼 지급되는 병가 또  
 는 휴가, 보너스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반대로 자영업자라면 수입은 돈을 번  
 때가 아니라 실제 받은 때를 기준으로 한  
 다. 올해 벌었지만 내년에 돈을 받는다면  
 수입은 내년으로 계산된다는 것이다. 하  
 지만 소셜 연금을 신청하는 첫해에는 예  
 외가 적용돼 신청전에 벌었지만 실제 돈  
 은 신청후에 받았다면 한계 계산에는 포  
 함되지 않는다.

**은퇴 첫해 예외 규정**

연금을 한해 중반에 신청했는데 신청전  
 에 번 돈이 이미 소득 한계치를 넘어서는  
 은퇴자들도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첫해

받는다. 이는 영희 씨의 2개월 수입이 만  
 기 은퇴 연령 미만의 은퇴자 월 수입 한계  
 1,580달러 이하이기 때문이다.

만약 영희 씨가 11월과 12월 1,580달러  
 이상을 벌게 된다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남은 달의 연금을 지급해 주지 않고 보관  
 해 둔다. 이후 영희 씨는 2022년 부터 위  
 에서 설명한 대로 수입 한계 규정에 적용을  
 받는다.

자영업자의 경우는 비즈니스를 위해 공  
 현하는 시간을 기준으로 예외 규정을 적  
 용한다. 일반적으로 한달에 45시간 이상  
 일을 한다면 소셜 시큐리티국은 은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자영업을 위해  
 한달에 15시간 미만 일을 한다면 은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15~45시간 일을  
 한다면 자영업 직업이 많을 기술을 요하

음 연금은 불어나 지급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설명해 보자**

철수 씨가 2021년 62세 되는 달부터 연금  
 을 신청해 매달 920달러를 받는다. 철수  
 씨가 다시 일을 시작해 연금이 12개월동  
 안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소셜 시큐리티  
 국은 철수 씨가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66  
 세10개월부터 한달에 985달러를 지급한  
 다. 당초 62세 지급되는 920달러보다 많아  
 진 돈이다. 또 철수 씨가 62세부터 66세10  
 개월까지 부지런히 일을 해 많은 돈을 벌  
 었고 그동안 연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고  
 보관됐다면 철수 씨는 66세10개월부터 한  
 달에 1,300달러를 받는다.

**일을 하면서 연금을 올려 받는 방법 있나**

있다. 소셜시큐리티국은 연금을 받으면서

만기 은퇴 연령이 되는

해 수입 한계 5만2,638달러를  
 2,118달러 초과하게 된다. 따  
 라서 길동 씨의 7개월간 소셜  
 연금은 706달러가 공제된  
 다. 3달러당 1달러씩 공제  
 되기 때문이다. 결국 길  
 동 씨는 첫 7개월 동  
 안 받아야 하는 연금  
 5,600달러에서 706달  
 러가 제해진 4,894달러를 받게 된다. 길동  
 씨는 만기 은퇴연령이 되는 8월부터는 아  
 무리 많은 추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800  
 달러 연금을 전액 받게 된다.

물론 길동 씨는 이 기본 연금에 그동안  
 공제돼 받지 못했던 돈까지 추가로 받게  
 된다.



<4월 15일부터>

## 캘리포니아 전 성인에 백신 접종 시작

### 46개주 5월 1일부터 16세 이상으로 확대 바이든 “백신 맞고 독립기념일 때 만나자”

백신 접종을 16세 이상 전 연령대로 확대하는 주들이 늘고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알래스카, 미시시피에 이어 텍사스와 조지아도 전연령대로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다. 또 16세 이상 고위험군에게도 백신을 접종하는 캘리포니아는 4월1일부터 50세 이상 전 주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했고 4월15일부터는 16세 이상으로 전면 개방했다.

유타도 3월말 전연령대 백신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테네시는 4월5일 전 연령대로 확대한다. 또 뉴욕도 3월말 50세 이상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각 주들마다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있다.

연방 정부는 최근 미국인들의 접종이 늦어질 경우 변종으로 인한 4차 확산이 우려된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각 주정부는 백신 접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5월말까지 모든 성인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을 공급할 것이라면서 마스크 착용 같

은 건강 수칙을 잘 지키고 전국민이 백신 접종을 받는다면 7월4일 독립 기념일까지 정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DC와 미국내 46개 주가 5월1일 이전까지 모든 성인에게 백신접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3월30일 현재 미국내 인구 30%가 최소 1차 접종을 받았고 16%는 2차 접종을 마쳤다. 현재 미국에서는 5만개에 달하는 장소에서 하루 250만명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별 접종 비율이 큰 차이를 보여 연방정부가 대책을 고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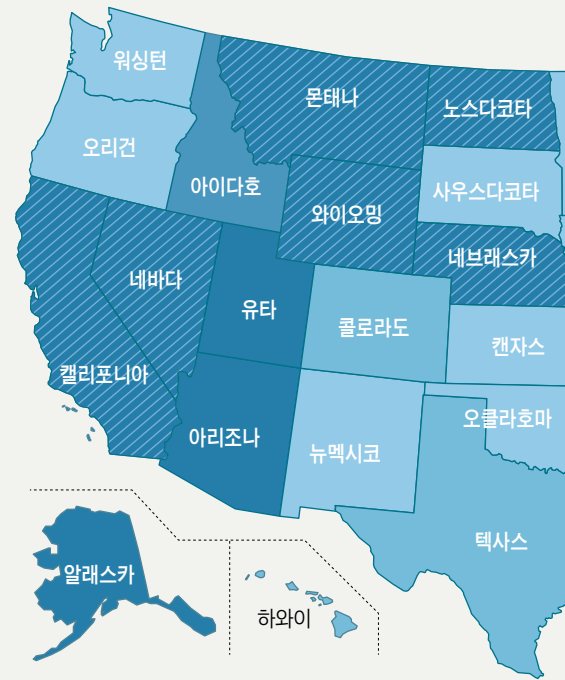


뉴욕의 경우 성인의 30%가 최소 한차례 이상 백신 접종을 마쳤다. 그러나 흑인 및 라티노 등 소수계 거주 지역은 25%에 불과해 백인 지역 35%에 비해 인종적 지역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CDC는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소수계 커뮤니티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늘리고 있다.

주별 백신 접종 현황표 (3월 27일 현재)

주	나이	고위험군	전연령대
캘리포니아	18+	O	4월 15일
워싱턴	65+	O	5월 1일
오리건	65+	O	5월 1일
아이다호	45+	X	4월 5일
유타	16+	O	3월 24일
네바다	16+	O	4월 5일
몬태나	16+	O	4월 1일
와이오밍	16+	O	
콜로라도	50+	O	4월 중순
뉴멕시코	60+	O	4월 중
노스 다코타	16+	O	3월 29일
사우스다코타	65+	O	5월 1일
네브라스카	16+	O	5월 1일
캔자스	65+	O	3월 29일
오kl라호마	65+	O	3월 29일
텍사스	50+	O	3월 29일
미네소타	65+	O	3월 30일
아이오와	65+	O	4월 5일
미주리	65+	O	4월 9일
아칸소	65+	O	
루이지애나	65+	O	3월 29일
위스콘신	65+	O	5월 1일
일리노이	18+	O	4월 12일
테네시	16+	O	4월 5일
미시시피	16+	O	3월 16일
인디애나	40+	O	3월 31일
켄터키	40+	O	4월 12일
앨라배마	55+	O	5월 1일
오하이오	40+	O	3월 29일
알래스카	16+	O	3월 9일
하와이	65+	O	5월

16세 이상 또는 18세 이상 40+ 또는 45+



주	나이	고위험군	전연령대
애리조나	16+	O	3월 24일
코네티컷	45+	X	4월 1일
델라웨어	50+	O	5월 1일
플로리다	40+	O	4월 5일
조지아	16+	O	3월 25일
메인	50+	X	4월 19일
메릴랜드	55+	O	4월 27일
매사추세츠	60+	O	4월 19일
미시간	16+	O	4월 5일
뉴햄프셔	50+	O	4월 2일

## 백신, 임신부와 수유 여성에도 효과적

### 태아에 유전적 변이 가능 없어

화이자와 모더나 코로나-19 백신이 임신부와 수유 여성들에게도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미국산부인과학 저널에 실린 최신 연구 보고서가 밝혔다.

미국과학전문 비영리 단체 ‘유레카얼리트’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임신부와 수유 여성들의 백신 후 면역 반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반응보다 훨씬 더 양호하게 나타났다. 또 백신 후 부작용 사례도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연구에는 임신부 84명, 모유 수유 산모 31명, 임신하지 않은 여성 16명 등 131명의 가임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연구에 참여한 하버드 대학 교수 갈릿 알터 박사는 “이들 백신이 조사대상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한편 임신부 또는 수유 임신부들은 백신 접종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CDC는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은 mRNA 계열의 백신으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를 옮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히 CDC는 mRNA 백신은 인간의 DNA와 상호작용하지 않으며 mRNA가 우리의 DNA를 간직하고 있는 세포핵 속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유전자 변이도 생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CDC는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면서 “임신부와 수유 임신부에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고 말했다.

만약 걱정이 된다면 신뢰하는 의사와 상의하라고 CDC는 조언했다.

## 백신 맞아도 타인에게

### 파우치 “집단 면역 가려면 86% 접종 받아야”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보건 규칙 지켜야

백신을 다 맞고 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더 이상 옮기지 않을까.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해 확실하게 장담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앤소니 파우치 미국 감염병연구소장은 전기 스위치처럼 팬데믹 이전으로 금방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마스크와 거리두기 등 모든 공공 안전 수칙을 버리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CNN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국민의 85%가 백신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말한 집단 면역은 백신을 통해서 또는 자연 감염을 통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질병의 면역이 생겨야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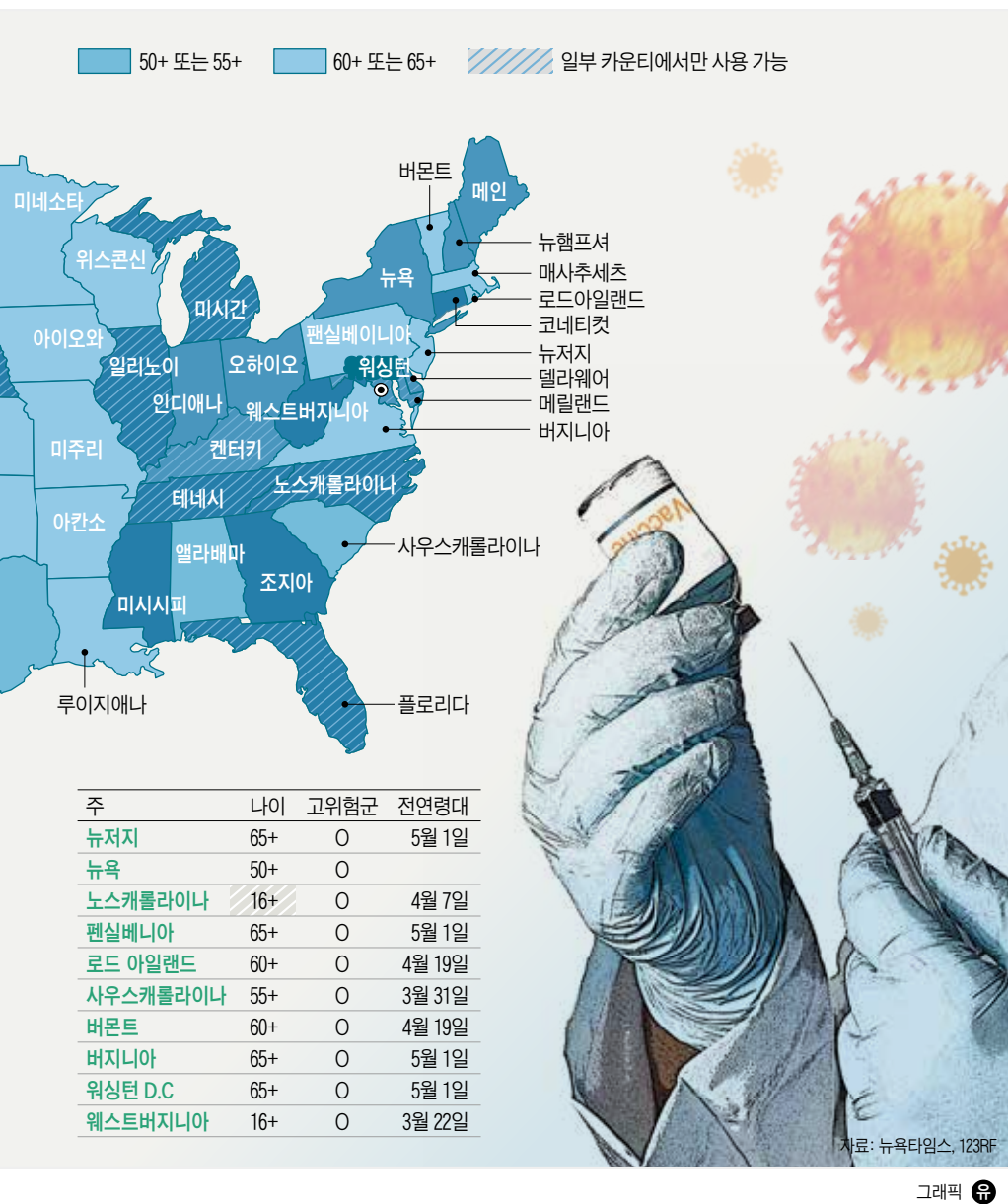
그렇다면 백신을 맞으면 더 이상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않을까.

대부분 전염병 전문가들은 고효율 백신은 접종 후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에 대한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확한 데이터가 부족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시 말해 아직은 데이터 부족으로 백신 접종 후 다른 사람에게 전혀 바이러스를 옮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존홉킨스 대학의 아미시 아다



# 코로나 19 백신 접종 카드 잘 보관해야



## 일상생활에 필요한 증빙서류, 차후 보강 백신 나올 때 증명 필요

### 백신 카드 관련 일문일답

백신 접종을 마치면 접종 확인 카드를 받을 것이다. 이 백신 카드는 앞으로 일상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이력서와 같이 활용되므로 잘 보관하라고 의료 전문가들이 조언했다. 이 백신 카드에는 접종 일자과 백신의 종류 등이 적혀있다. 의료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해줄 뿐 아니라 앞으로 있을 지 모를 추가 백신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증빙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백신 카드를 분실했어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이번 팬데믹 기간 중에 가장 소중히 간직해야 할 서류 중의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다음은 백신 카드와 관련된 일문일답.

**-백신카드를 보관해야 하는 이유**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다. 현재 백신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접종 백신의 종류와 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앞으로 있을 지 모를 추가 백신 접종 때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증명서가 될 것이다. 또 학교에서 또는 위락시설, 여행 등에서 바이러스 감염 재 검사를 받고 격리될 수도 있다. 백신 접종 카드가 있다면 이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 -카드를 분실했다면

공백의 카드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다만 백신 정보를 직접 기입해야 한다. 다행히 백신 접종 장소와 주 정부에서 이들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

### -카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카드 사진을 찍어 두고 카드를 안전한 곳에 보관한다. 또 카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으므로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것을 금하는 것이 좋다.

### -앞으로 백신 기록이 디지털화 되나

몇몇 개발회사와 비영리단체들이 백신 접종을 확인 해 주는 안전한 앱을 만들고 있다. 간편하게 종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다.

### -인터넷에서 백신 카드를 판매한다고 하는데

정부에서 매우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백신 카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카드는 결코 구입하면 안 된다. 위조다.

### -백신기록을 원치 않는 이유가 있다면

각 카운티 보건국에서 이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와 백신 기록을 잘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카드를 없애 버린다고 해서 개인 신상 정보가 강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감염 시킬 수 있어

야 감염병 전문가는 “FDA가 승인한 백신은 증상 있는 질병 예방에 초점을 맞춰 임상 실험을 실시한 것이 무증상 질병에 대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 때문에 백신 후 무증상 전염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통계상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 최대 20%가 무증상자였다. 아직 확실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증상 없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특히 2차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100% 바이러스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바이러스가 백신 접종 후에 체내에 침투한다면 면역 시스템이 발동해 싸워 물리칠 수 있다고 해도 미량의 바이러스가 몸에서 복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다야 교수는 이럴 경우 아주 작은 증상 또는 무증상을 경험할 수 있지만 우리 몸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바이러스를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면역이 생기지 않은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하지만 타인에게 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전했다.

CDC는 웹사이트를 통해 백신 접종 후 완전 면역이 생길 때까지 수주가 걸리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체내 침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타인에게도 전염시킬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백신 접종을 마쳤다고 해도 집단 면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최소 6피트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자주 씻고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해야 한다고 CDC는 경고했다.

## 바이러스 감염됐다 나으면 1차 접종 후 부작용 심해

### 이미 면역체 일부 형성돼 백신 맞으면 반응 나타나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후 열과 두통, 몸살, 피로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또 첫번째 접종보다 두번째 접종 후에 이들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이미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은 첫번째 백신 접종에 더 강한 면역 반응으로 부작용을 심하게 경험한다는 한 연구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스라엘의 바-일란 대학이 지난달 발표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적이 있는 사람들은 첫번째 백신 접종 후 면역 반응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미 바이러스에 감

염됐다면 1차례 접종만으로도 매우 ‘효과적’인 항체가 형성된다는 이론이 가능하다고 대학은 설명했다.

주간 의학지 ‘랜셋’에 실린 또다른 연구 보고서도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던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첫번째 접종 후 항체가 140배나 더 형성됐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메요 클리닉 헬스 시스템’의 에린 모콰 가정의 겸 코로나 백신팀장은 “그동안의 연구에서 두번째 백신 접종이 첫번째 접종 때 보다 더 부작용이 나타났지만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은 첫번째 접종 후 부작용을 경험할 가능성이 훨씬 높았다”고 보고했다.

그녀는 이유에 대해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면역 시스템이 이미 강력 반응하며 면역체가 일부 형성됐기 때문에 백신을 맞는 즉시 강한 반응을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 3-PLY DISPOSABLE MASKS

**최고의 재료, 인체에 맞는 맞춤형 마스크**  
**착용감 좋고 얼굴 부위에 잘 달라붙는 마스크**



**뜨는 공간 없어  
바이러스 유입  
철저히 차단**



**IRS, “마스크 구입비 세금 공제 가능”**  
**바이러스 예방 위한 개인 장비 구입시**

지난해 가장 인기 상품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은 물품을 꼽으라면 단연 마스크와 손 세정제였을 것이다.  
팬데믹으로 재택령이 떨어졌던 3월 15일 이후 마스크와 손 세정제는 일찌감치 품절 품목으로 마켓에 나올 때마다 서둘러 쇼핑카트에 담았던 경험은 한 번씩 다 있었을 것이다.  
IRS가 지난해 이런 사정을 헤아리는 조치를 지난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그리고 개인 안전을 위한 기타 보호장비를 구입했다면 2020년 세금 보고 때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S는 공지문을 통해 “마스크와 손 세정제, 세정용 휴지와 같은 개인 보호장비를 코로나바이러스 예방을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료비용 공제를 받으려면 항목별 공제를 신청해야 하며 의료비용이 조정 후 총수입(AGI)의 7.9%를 넘어야 한다.  
IRS는 2020년 세금 보고 때 항목별 공제를 받는 납세자는 10% 미만일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표준 공제를 대폭 늘리면서 항목별 공제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 기업·교회 등 단체주문 환영 \*\***  
1420 ESPERANZA STREET LOS ANGELES, CA 90023

**(323)262.0098**



# 죽은 남편의 빚을 부인이 갚아야 하나



일러스트 유

한국 드라마에는 죽은 부모나 배우자가 진 빚 때문에 가족들이 평생 빚더미에 올라 힘들게 살아가는 상황이 자주 등장한다. 일종의 '연좌제'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USA 투데이가 최근 보도한 내용을 정리했다.

배우자의 죽음은 정신적, 정서적 충격일 뿐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으로 다가설 것이다. 여기에 죽은 배우자가 크레딧 카드 부채, 용자 또는 기타 보증 등으로 인한 빚을 지고 있다면 충격을 넘어 고통까지 동반하게 된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죽기 전에 진 빚을 살아 있는 배우자가 갚을 의무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아니다' 이다.

## 죽은 배우자의 빚을 내가 갚아야 하나

배우자를 포함해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죽은 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크레딧 카드, 학자금 대출, 자동차 용자, 모기지, 비즈니스론 등등. 그럼 채권자들이 이런 부채를 그냥 잃어버려야 하는 가라는 의문을 가질 것이다.

만약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 재산이 있다면 당연히 회수가 가능하다. 살아 있는 배우자나 가족들은 부채에 대한 개인적 변제 의무는 없지만 죽은 사람의 재산은 부채 청산에 사용된다.

##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할 때

대부분, 직접 갚을 필요는 없지만 갚아야 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빚을 갚아야 한다.

### ◇조인트(공동)로 소유했을 때

배우자와 함께 코사인인 한 대출금이라든지, 크레딧 카드를 공동 계좌로 조인했다면 부채에 책임을 공동으로 지게

## 주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 '커뮤니티 재산권' 인정하는 주에서는 책임져야

### 캘리포니아, 워싱턴, 텍사스 등 9개 주가 재산권 인정해줘

### 401(k) IRA 등 은퇴 플랜은 부채 대상에서 제외

### 트러스트 신탁 또는 생명보험 가입도 도움

된다.

◇커뮤니티 재산 인정하는 주에 살 때 살고 있는 주가 '커뮤니티 재산' (Community Property)을 인정해준다면 배우자의 부채는 부부의 공동 책임이 된다. 죽은 배우자가 혼자서 이름으로 빚을 졌다고 해도 커뮤니티 부채로 인정돼 남은 배우자가 빚을 갚아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만일 거주하는 주법에 따라 부부 공동 부채 책임을 묻는다면 배우자의 부채를 갚아야 한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죽은 배우자의 병원이나 치료비가 밀려 있다면 그 비용은 배우자가 갚아야 한다.

미국내 커뮤니티 재산을 인정하는 주는 루이지애나·애리조나·캘리포니아·텍사스·워싱턴·아이다호·네바다·뉴멕시코·위스콘신이다. 이들 주는 결혼 후 획득한 자산은 모두 '커뮤니티 재산' (Community property)로 인정한다.

크레딧 카드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카드 공동 명의자' (joint account holder)와 '카드 사용 승인자' (authorized user)로 나뉘어 부채 의무가 달라진다. '카드 공동 명의자' 는 글자 그대로 카드를 개설할 때 이름이 공동으로 올려 진다. 보통 부부들이 이런 방법으로 카드를 개설한다.

'어서라이즈드 유저' 는 역지로 번역한다면 '카드 사용 승인자' 정도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카드 개설자는 따로 있고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어린 자녀들을 위해 부모가 카드를 개설하고 일정 한계 금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경우다. 카드 공동 명의자는 죽은 배우자의 카드 빚을 갚을 의무를 진다. 하지만 '카드 사용 승인자' 로 되어 있다면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다. 카드 소유주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런데 커뮤니티 재산을 인정하는 주에서는 배우자 카드 사용 승인자도 부채의 의무를 지므로 부채를 갚아야 한다.

## 죽은 배우자의 부채로 소송 당할 수 있나

앞서 설명한 대로 조인트 또는 커뮤니티 재산권이 인정될 때는 채권자가 클레임을 통해 잔여 부채를 청구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채권자는 법원 판결을 받은 후, 급여 또는 은행 잔고에서 돈을 가져 가겠다고 청구한다.

부채를 갚을 의무가 없다고 해도 일단 소송을 당하면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처하는 것이 좋다. 소송을 당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인 판결이 내려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 미리 계획을 세운다

숨진 배우자의 부채에 대한 책임이 있거나 부채를 정리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바람직 하다. 생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으로 부채를 갚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장례 비용 등의 재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 401(K)와 IRA와 같은 개인 은퇴 저축 플랜은 일반적으로 부채와는 관계 없다.

따라서 고인으로 부터 이런 플랜을 물려 받는 수혜자(베니피셔리·beneficiary) 역시 부채 변제의 의무는 없으므로 누굴 수혜자로 해 놓을 지 미리 잘 정해 놓는 게 좋다. 특히 모든 재산을 트러스트(신탁)에 넣어두는 것도 부채를 면하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산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한다.



# 일찍 투자하면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자녀의 미래를 위한 4가지 저축

요즘 팬더믹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구직란을 겪고 있다. 구직란은 곧 재정 문제와 직결된다. '컬리지 액세스 앤드 칼리지' 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 대졸자 10명중 6명은 학자금 부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의 평균 대출금은 2만8,950달러다. 그렇다면 자녀나 손주들이 학자금 부채없이 대학에 다니고, 졸업후 학자금 대출 없이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미래를 대비한 불변의 진리가 있다. 일찍 투자할 수록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남들보다 훨씬 편안하고 안정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큰 돈도 필요 없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심정으로 조금씩 저축한다면 미래에는 자녀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큼 상당한 자금이 모아질 수 있다. 그러려면 부모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다면 부모들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 두면 좋을 까.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면 좋은 4가지 저축 구좌를 소개한다.

### 커스토티얼 어카운트(Custodial Accounts)

우리말로로는 '양육 관리 계좌'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은행에 자녀들의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해 주고 데빗 카드를 만들어 준다면 자녀들에게 건강한 재정 습관을 키워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자칫 무분별하게 돈을 사용해 낭비벽을 부를 수 있다.

차라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구좌를 개설해 주지만 부모가 관리를 해주는 '양육 관리계좌'가 미래를 위한 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자녀들이 직접 관리하는 은행 구좌와는 달리 '양육 관리 계좌'는 자녀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해도 성인이 되기전까지는 구좌를 자녀들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계좌를 'UGMA/UTMA' 구좌라고 부른다. 계좌에 부모가 입금시키는 돈은 부모가 다시 회수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철이가 여름방학에 일을 한 대가로 할아버지가 돈을 계좌에 넣어줬다면 그 돈은 철이가 18세 또는 21세(주에 따라 다름)때부터 요긴한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는 '커스토티얼 어카운트'를 은행에서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브로커 투자회사를 통해 개설할 수도 있다.

브로커 계좌를 개설하면 적립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장기적으로 투자해 더 많은 이득을 올릴 수 있다. 물론 주식은 변동이 심해 위험성도 높다. 따라서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다면 몰라도 어느정도 나이가 들었다면 투자비율을 잘 조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계좌는 일반적인 학자금 저축 구좌인 '529' 대학 학자금 계좌와는 다르게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을 내야 한다. 물론 세율은 어린이용 세율이 적용된다. 이는 부모들이 세율을 낮추기 위해 자녀들에게 투자 수익을 돌려 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2020년 기준으로 어린이용 세율이 적용되는 투자 수익은 2,200달러까지다. 그 이

상의 금액은 부모 세율이 적용된다. 이런 종류의 구좌는 찰스 슈왓이나 TD아메리 트레이드 등을 통해 개설할 수 있으며 요즘은 '얼리 버드' 라는 새로운 모바일 앱도 등장했다.

### 트러스트(Trusts)

UGMA, UTMA 양육계좌는 개설하기가 매우 쉽고 비용도 들지 않지만 트러스트는 더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렇다고 트러스트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양육 커스토티얼 계좌는 자녀들이 성인 나이가 되면 100% 관리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18세에 큰 돈을 받아 관리한다는 자체가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반면, 트러스트는 부모들이 트러스트를 개설할 때 정확히 돈의 지불 방법을 명시할 수 있기 때문에 양육 커스토티얼 계좌와는 다르게 재정 관리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 돈을 매달 나누어 자녀들에게 지불할 수도 있고 학자금으로만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 사용처를 분명히 할 수 있어 혹시나 있을 자녀들의 낭비벽을 막을 수 있다. 다만 529 학자금 계좌와 같은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 529 계좌

'529' 계좌는 대학 학비를 준비하는 최적의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계좌의 잔고를 등록금, 기숙사, 교재 등 학비로 사용하면 전액 면세다. 또 주에 따라 부모에게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SavingForCollege.com'에 따르면 미국내 30개 주 이상이 529 적립금 일부 또는 전부를 세금 공제해 준다. 이 계좌는 꼭 대학 학비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들의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의 등록금으로 사용한다면 연간 1만달러까지 돈을 찾아 쓸 수 있다.

### 로스 IRA(Roth IRAs)

IRA는 근로 소득이 있어야만 개설이 가능하다. 따라서 자녀들이 집일을 도와주거나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부모가 함께 자녀의 이름으로 IRA 어카운트를 개설해 주는 것이다.

특히 로스 IRA는 세금을 낸 수입으로 적립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적립금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한다. 하지만 돈을 많이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는 한 자녀들이 세금 보고를 할 필요는 없으므로 세금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일반적으로 이런 구좌는 은퇴 대비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외적으로 미리 찾아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돈을 찾아 쓴다면 조기 인출에 따른 벌금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또 어카운트를 개설한지 5년이 지났다면 세금이나 벌금 없이 첫 주택 구입을 위해 1만달러까지 찾아 쓸 수 있다.

로스 IRA 적립금에는 제한이 따른다. 앞서 설명한 대로 근로 소득이 있어야 적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웃의 잡일을 도와줬거나 베이비 시팅을 해서 돈을 받았다면 적립이 가능하다. 2021년 기준으로 최고 6,000달러까지 또는 수입의 100% 중 적은 쪽을 택해 적립할 수 있다. 파트타임으로 1,000달러를 벌었다면 1,000달러 모두를 올해 적립할 수 있다는 말이다.

커스토티얼 구좌 좋지만 어려서 큰돈 관리 어려워  
사용 목적 뚜렷이 명시하는 트러스트도 좋은 방법  
529 플랜, 로스 IRA로 자녀 학비 마련 계획해야





# 재용자 할까 아니면 갚아 버릴까

요즘 모기지 이자율이 역대 최저수준을 밑돌고 있다.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재용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남은 모기지를 다 갚아 버려야 하나. 주택 소유주가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었다면 재용자를 통해 페이먼트를 크게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다.

온라인 재정 분석 사이트 'Bankrate.com'에 따르면 30년 고정 주택 모기지는 3% 미만이고 15년 고정은 2.5%를 밑돌고 있다. 따라서 재용자를 해서 페이먼트를 낮추고 절약한 돈으로 투자를 하거나 팬더믹의 불안한 상황을 감안해 현금을 보유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반면 현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별로 좋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주택 소유주들은 차라리 남은 모기지를 빨리 갚아버리고 안정적인 은퇴를 원할 수 있다.

볼티모어에 본부를 둔 퍼셋 웰스의 공인 투자 상담가 브렌트 와이스는 "역사상 유례없는 저리시대에 살아가는 요즘의 주택 소유주는 모기지가 최대 관심사"라면서 "소셜 미디어마다 재용자나 빨리 갚아 버릴 것이냐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재용자라면 지금이 적기

모기지 이자율이 다소 상승세를 반전되고 있다. 올해 초 2.65%까지 내려 갔던 30년 고정 이자율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상승에 따라 다소 상승세를 타고 있다. 물론 모기지 이자율은 미국 경제 회복의 속도에 따라 변할 것이다. 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 부양책이 계속된다면 경기엔 큰 도움이 되겠지만 시중에 많은 자금이 풀리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가중될 것이다. 이미 미국 상무부는 지난 1월 소비 지출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기지 이자율은 올라 가게 된다.

최근 수주동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다. 이자율은 국채 수익률과 비례해 상승하기 때문에 장기 모기지 금리 역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다는 말이다. 3월 15일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이자율은 2.81%로 지난 수주전에 비해 0.20 포인트 올랐다.

뉴욕 TIAA 보험사의 션 윌슨 시니어 디렉터는 만일 직장에서 W-2를 받는다면 재용자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고정 수입을 쉽게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재용자 모기지 대출이 훨씬 수월하다. 그는 "일단 은퇴를 하게 되면 재용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므로 아

직 직장 생활을 할 때 재용자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물론 재용자를 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현재의 미국 경제 이외에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은퇴를 언제 할 것인가, 은퇴 후에도 집 모기지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여분의 자금이 있는가, 또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계속 살 예정인가도 고려해야 할 점들이다. 특히 어떤 종류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자만 내고 있는지, 고정 이자율인지 아니면 변동 이자율인지, 또 모기지를 다 갚는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재용자를 받는다면 어떤 모기지를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재용자를 받을 때 내야 하는 클로징 비용을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인지 등등.

## ▷모기지 이자율과 투자 수익률 비교

팬더믹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에 가능한 재정 지출을 단순화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약 다른 투자처가 있다면 투자 수익률과 모기지 이자율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다. 다른 투자 수익률은 1%에 그치는데 모기지 이자는 이보다 훨씬 높다면 당연히 투자금을 회수해 높은 이자율의 모기지를 먼저 갚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를 들어 62세 예비 은퇴자가 이자율 4%의 모기지를 가지고 있고 각종 투자 포트폴리오도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수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보수적으로 투자한다면 당연히 수익률은 낮

을 것이다. 그가 아직 갚아야 할 모기지 부채는 20만달러이고 은퇴후 펜션과 소셜시큐리티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익성 낮은 투자금을 회수해 은퇴 전 모기지를 갚는 것이 최상의 방법일 수 있다. 반대로 현재 모기지 이자율은 2.5%인데 투자종목의 수익률이 4% 이상이라면 4% 이상의 수익률이 나는 투자 상품을 처분해 모기지를 갚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다.

## ▷현금은 비상금으로 보관

만약 투자 포트폴리오 이외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 현금으로 모기지를 갚는 것 역시 권할 만한 해결책은 아니다.

매사추세츠 프래밍햄에 있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의 조엘 스피어 공인 투자 자문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동안에는 3~6개월 분의 현금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은퇴를 했다면 6~9개월 간의 현금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모기지 이자세금 공제

모기지 이자율에 대한 세금 공제 또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주택 모기지 이자는 세금 보고 항목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지출한 이자 총액을 소득에서 제할 수 있다는 말이다.

IRS에 따르면 2017년 12월 16일 기준으로 이전에 구입한 주택은 모기지 100만달러까지의 이자(부부 공동)를 세금 공제할 수 있지만 이후 구입한 주택은 최고 모기지 75만달러의 이지만 공제해 준다. 모기지 이자 혜택을 줄인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에 80만달러의 모기지로 집을 구입했는데 2020년 이자를 2만 5,000달러 냈다면 2만 5,000달러를 전액 세금 보고 때 공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2020년에 80만달러의 모기지를 용자 받았다면 2017년 바뀐 '감세 및 일자리법'에 따라 공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줄어든다.

## ▷어떤 돈으로 모기지를 갚을 것인가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주들은 모기지를 갚을 때 비상금을 빼고 남은 현금을 먼저 모기지 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그다음 세금을 내고 난 저축 계좌 그리고 은퇴 연금 플랜과 같은 세금 유예 계좌 순으로 정리해 모기지 변제에 사용한다. 직장 은퇴 연금 플랜인 401(k)를 매우 낮은 수익의 보수적 펀드에 투자했다면 이를 먼저 찾아 비싼 이자의 모기지를 갚을 수 있다. 하지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세금 유예 은퇴 플랜은 찾아 쓸 때 수입으로 잡힌다. 따라서 과세 비율이 경중 뛰어올라 세금을 더 많이 낼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존김기자

## 재용자로 페이먼트 줄이고 현금 확보 투자금 수익률 낮다면 모기지 정리도 방법 모기지 없으면 세금 공제 혜택도 사라져





# 유언장 통해 받은 현금·부동산 세금 내지 않는다

## 유산과 트러스트 과세 일문 일답

유산을 받았을 때 또는 트러스트(신탁 재산)에서 돈을 지불 받기 시작했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음은 전자 세금보고 사이트 '터보 택스'가 택스 시즌을 맞아 밝히는 유산과 트러스트의 과세 규정을 알기 쉽게 문답으로 정리한 것이다.

### 유산을 받았을 때

-지난해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았다. 5만달러를 받았는데 올해 세금 보고 때 세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유언장을 통해 받은 5만달러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삼촌으로부터 1만달러 상당의 주식을 상속받았다. 과세 대상인가.

주식을 물려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주식을 팔았다면 경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주식을 물려 받았다면 유산 또는 상속 기록에 표시된 있는 삼촌의 사망 일자 당시의 주식 시세가 과세 기준이 된다. 따라서 삼촌의 사망 이후 주식이 올랐다면 오른 만큼만 자본이득세를 내게 될 것이고 주식이 내린 후 팔았다면 자본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

-상속받은 모든 재산은 세금이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

한마디로 아니다. 현금과 주식, 부동산을 물려 받았을 때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그런데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았을 때 이익이 남았다면 상황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하는 상속 자산도 있다. 이럴 경우 고인이 살아 있을 때와 같은 세율



고인의 사후 발생하는  
수익·이자 과세

고인이 받지 못한  
임금·렌트 수입 세금 내야

로스 IRA는 물려받아도  
연방 소득세 없어



로 세금을 내야 한다. 이를 '고인의 수입'이라고도 부른다. 고인이 생전에 받지 못한 급여, 보너스, 커미션, 식데이, 어뉴이티, IRA, 401(k), 받지 못한 렌트 수입, 이자, 배당금 등등이 이에 속한다. 본드(채권)를 물려 받았다고 예를 든다면 본드를 물려준 피상속인이 평생 동안 쌓아둔 모든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은퇴연금 보험인 '어뉴이티'를 물려 받았다면 피상속인이 냈던 것 처럼 페이먼트의 일부가 과세 대상일 수 있다. 과세는 어떻게 돈을 받는 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전통 IRA를 물려 받았을 때도 이와 동일하다.

-모친으로부터 '애국 채권'이라는 연방정부 발행 장기 채권 'EE 세이빙스 채권' (EE Savings Bonds)을 유산으로 물려 받았다. 채권 모두 과세 대상인가.

채권의 원금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동안 지급되지 않은 '경과 이자' (accrued interest)의 일부 또는 전부는 과세 대상이다. 만약 모친이 대부분의 채권 투자자처럼 매년 발생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았다면 유산을 정리하는 집행인이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까지의 이자 수입에 대한 소득세를 유산에서 제하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유산으로 받은 채권을 처분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하지만 모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두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 세금을 내던가, 아니면 채권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을 미루던가 하면 된다. 만약 모친의 유산 집행 당시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 세금을 내던지, 아니면 처분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다. 모친이 매년 발생하는 채권 미수 이자에 대해 세금을 냈다면 모친이 사망한 후에 발생한 이자만 보고하면 된다.

-아버지가 2020년 68세로 돌아가셨다. 내가 아버지의 은퇴 플랜인 IRA의 베니피셔리(수혜자)로 되어 있는데 면세 대상인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은퇴 플랜이 세금을 낸 후의 수입으로 적립하는 '로스' IRA이고 수혜자가 돈을 찾아 쓰기 5년전에 개설된 것이라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세전 수입으로 적립하는 '전통' IRA라면 구좌에서 찾는 돈은 과세 대상이다. 돈을 인출할 때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 12월 31일까지의 수혜자 기대수명치(IRA 표 참조)에 따라 계산된 연간 의무 인출금을 받는 방법.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로부터 5년 되는 해까지 구좌의 모든 돈을 빼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매년 받는 기대 수명치 방법을 택했다면 돈이 없어질 때까지 받을 수 있고, 수혜자가 죽으면 남은 돈은 또 다른 수혜자(자손)에게 대물림된다. 물론 세금을 내야 한다.

-남편이 2020년 68세로 숨졌고 그가 가지고 있던 '전통' IRA를 물려 받았다.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은?

앞서 설명한 2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배우자라면 한가지 더 추가되는 옵션이 있다. 남편의 구좌를 부인의 구좌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다. 남편 구좌의 돈을 부인의 구좌로 롤오버(이체)시키거나 남편의 IRA 구좌 이름을 부인으로 바꾸면 된다. 이럴 경우, 죽은 남편의 나이가 아니라 부인의 나이에 따라 72세부터 갖기 시작할 수 있다.

###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아들을 위해 '트러스트' (신탁 구좌)를 개설했다. 트러스트에 대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나.

트러스트의 종류에 따라서는 세금보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버지가 나를 포함한 가족들을 위해 개설해 준 트러스트에서 1041(k-1) 폼을 받았다. 내 세금 보고에 어떤 영향주나.

트러스트 수혜자라면 트러스트에서 지불되는 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스케줄 k-1은 트러스트에서 지급되는 돈, 디덕

### 트러스트 원금은 세금 안내 이자 금액 작아도 고세율 적용

션, 크레딧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다.

-트러스트는 어떻게 과세되나.

트러스트의 베니피셔리(수혜자)가 트러스트의 원금을 지급받는다면 지불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S는 이런

돈은 이미 트러스트에 들어가지 전에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일단 트러스트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 수익은 소득으로 간주돼 수혜자 또는 트러스트 자체가 세금을 내게 된다.

트러스트는 세금 회피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낮은 수입에 대해서도 개인보다 높은 고세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불되지 않은 과세 소득이 2,600달러 이상 있다면 2020년 기준으로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정도 과세율이 적용되려면 부부 공동 세금보고자의 과세 소득이 17만1,050달러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8만5,525달러가 넘어야 한다. 매우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다.

특히 2020년 기준으로 지불되지 않은 과세 소득이 1만2,950달러가 넘는다면 세율은 최고 세율인 37%가 적용된다. 부부 62만2,050달러 이상, 개인 31만1,025달러 이상의 수입에 적용되는 세율이다. 부모로부터 트러스트를 물려 받았다면 세금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는 것이 좋다.



## “나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 팬더믹으로 애완동물 입양 늘어 견주 58%는 양육비 감당 못해 보험·미용 등 경비 절약 필요

팬더믹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미국인들이 부쩍 늘어났다. 그중에서도 애완견에 대한 미국인들의 사랑은 각별하다. 그런데 애완견을 무턱대고 키우겠다고 나섰다 가 감당을 못해 버리거나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애완동물 특히 개를 입양할 때는 경비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2019~2020년 미국 애완동물 용품 제작협회의 미국인 애완동물 보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인 가정의 67%(8,490 가정)가 애완동물을 키우고 있다. 88년의 54%보다 훨씬 늘어난 수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74.9%가 개이고 다음이 고양이이다. 또 미국에는 7,000만 마리의 유기 동물이 거리 곳곳에 버림받아 살고 있다.

휴먼소사이어티에 따르면 매년 유기 동물 중 600~800만 마리의 개와 고양이가 미국 내 3,500 동물 보호소에 잡혀 오거나 주인들로부터 버림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는 절대 주인을 기억에서 지우지 못한다.

애완견 온라인 사이트 ‘골든 두들 어디 바이저’에 따르면 개는 수년이 지나도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개는 후각 능력과 얼굴 인식 능력이 뛰어나 주인을 보면 금방 알아차린다. 긴가민가하고 망설일 틈이 없이 전주인을 알아보고 반갑게 달려들어 꼬리를 흔들 정도로 주인을 평생 기억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가족처럼 키우던 반려견들을 버리고 포기할까.

반려동물과 인간의 결연을 주선해주는 온라인 사이트 ‘rover.com’의 케이트 재피에 따르면 반려동물 특히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중 절반 이상인 58%는 애완견을 키울 만한 충분한 재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애완동물을 포기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재정이라는 말이다.

물론 애완견 키우는 비용은 지역에 따라, 또 품종에 따라 다르고 또 건강 정도에 따라라도 비용 편차가 크게 날 것이다. ‘rover.com’은 일반 애견 양육 비용이 연간 610~2,115달러는 족히 든다고 계산했



다. 더군다나 지난해 견주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47%의 견주는 평균 비용보다 훨씬 많은 연간 3,400달러가량 소비한다고 답했다.

#### 사료비

사료는 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 애견용품 생산업자 협회의 2019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견주가 연간 지출하는 평균 사료 비용은 259달러다.

플로리다 웨스트 팜 비치의 수의 행동학 박사인 리사 라도스타는 “비싼 사료가 개 건강에 더 좋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면서 “애견 사료 연구에 많이 투자하는 유명 제품의 저렴한 사료가 더 좋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료들의 가격은 파운드당 1달러 정도라고 그는 밝혔다.

집에서 직접 영양가 높은 사료를 만들어 주는 견주도 있는데 재료비가 훨씬 더 든다.

#### 애견 보험

라도스타 박사는 개를 구입할 때 애완동물 보험도 함께 가입하면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일반적으로 포괄 보험도 좋지만 좀더 저렴한 사고 보험에 가입해도 좋다. 애견 보험은 1년에 500~1,000달러 정도다. 질병까지 커버해주는 보험은 조금 비싸지만 그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작은 프린트 글씨까지 잘 숙지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보통 피부질환과 소화기 질환 같은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을 거부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개 보험 역시 개의 나이가 어릴 때 들어 두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근육 파열, 골절, 비뇨기 감염, 암 등과 같은 치료 비용의 90%를 커버해 준다. 그러나 정기 검진이나 중성화 수술, 기존 병력은 커버해 주지 않는다.

#### 개 미용

평균 애견 미용 비용은 60~90달러다. 하지만 이 또한 지역에 따라, 견종에 따라 다르다. 평소 견주가 애견의 귀와 발톱 정리를 맡김히 해 두는 것도 경비 절감에 도움이 된다.

이런 서비스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도 많다. 아예 집에서 직접 목욕을 시키고 털을 깎는 것도 경비 절감 방법이다. 유튜브 등에 전문가들이 목욕이나 발톱 정리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올려놓고 있다. 연간 수백달러는 절약할 수 있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털이 많은 푸들이나 아프간 하운드 같은 견종은 견주가 직접 집에서 털을 깎아 주기 힘들 수도 있다. 자칫 살을 벨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애견 호텔

주변에 친인척이 있다면 개를 맡기고 여행을 떠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다. 개를 싫어 할 수도 있고 또 개를 돌보는 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애견 호텔을 찾아야 하는데 전국 평균 호텔 비용이 하루 35달러다.

특히 대형 견이나 별도의 산책 등 특별 서비스를 요구한다면 비용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요즘은 개를 돌봐주는 돌보미도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애견 호텔에 맡기는 비용보다 더 저렴할 수 있다.



# 우리집 튀김요리 셰프 '에어 프라이어'



홍 기자의 웰빙정보

잘먹고  
잘살기

## 주방의 '인사템' 조리기 미국 내 가정 40%가 보유 '요알못' 도 즐기는 신세계 맛

요즘 젊은 세대에서 조직이나 무리 안에서 잘 어울리는 친화력 좋은 사람을 '인싸' (Insider의 줄임말)라고 부른다. 인싸에 접미사를 붙인 '인싸템'은 인싸들이 사용하는 최근 유행하는 물건, 혹은 이 물건을 사용하면 인싸가 될 정도로 '핫'한 물건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하는 물건은 바로 주방의 '인싸템'으로 떠오른 에어 프라이어(Air Fryer)다. 에어 프라이어는 말 그대로 화씨 150~400도의 뜨거운 공기(바람)를 이용해 튀김 요리를 만들어내는 조리기이다.

마켓 리서치 기관인 NPD그룹에 따르면 에어 프라이어 붐이 시작되던 2017년 3월부터 2년간 미국에서만 약 천만 대의 에어 프라이어가 판매되었고, 2020년 7월 기준 미국 내 가정의 40%가 에어 프라이어를 보유하고 있다. '프라이어'라고 불리는 이유는 튀김과 비슷한 식감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튀김은 고온의 기름을 이용해 재료의 수분을 날리는 요리법으로, 에어 프라이어의 고열 건조 방식은 이론적으로 튀김 조리법과 상당히 비슷하다.

만들 수 있는 요리의 종류는 무궁무진하다. 튀김만두, 감자튀김과 같은 대표적인 튀김 요리 뿐만 아니라, 토스트, 스테이크 등 기존 오븐을 사용하는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강한 열 바람을 사용하는 에어 프라이어는 오븐과는 비교가 안 될



에어 프라이어를 사용해 기존의 튀김기보다는 훨씬 적은 양의 기름으로 다양한 튀김 요리를 만들 수 있다.

정도로 조리 시간이 짧고, 차원이 다른 바삭한 식감을 선사한다.

재료 곁에 소량의 기름이나 버터를 발라준 뒤 조리하면 담백하지만 바삭함이 더해져 음식의 풍미가 한 층 업그레이드된다. 사용되는 기름의 양이 기존의 튀김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적은 양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책감(?) 없이 기름에 튀긴 음식을 즐길 수 있다.

냉동식품 혹은 '테이크 아웃' 음식의 눈부신 변신도 가능케 해 준다. 탕수육이나 돈가스 등의 음식을 '튀고' 해서 집에서 즐길 때 전자렌지로는 데울 시 20% 부족했던 음식의 맛을 에어 프라이어를 사용하면 100% 본래의 그것(혹은 그 이상으

로)만큼 끌어 올릴 수 있다. 요즘처럼 코비드 19로 인해 식당에서 음식을 먹기보다는 집에서 '튀고' 음식을 즐기는 경우가 많을 때 이만한 효자템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단점들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제품의 부피에 비해 실제 음식을 넣는 공간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이다. 1세대 에어 프라이어인 필립스의 비바 에어 프라이어의 경우 부피가 11.2×12.4×15.1인치로 일반 6인용 전기 밥솥 크기나 1~2인용 요리에 적합한 다소 아담한 내부 용량을 지니고 있다. 가격도 일반 튀김기나 미니 오븐에 비하면 조금 비싼 편이다. 에어 프라이 정보 사이트인 에어 프라이 데일리(Air Fry Daily)에 따르면 이외에도 세



냉동음식이나 튀고음식, 혹은 어제 먹다 남은 튀김 음식을 새것처럼 바삭하게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다양한 모양과 사이즈의 에어 프라이어가 출시되고 있다. 오븐형 에어 프라이어, 음식을 넣고 돌려가며 구워주는 통돌이식 에어 프라이어도 인기다.

척이 불편하고 기존의 튀김기보다는 조리 시간이 길다는 등의 단점이 있다. 구매 전 각자의 가정에 맞는 다양한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활용도가 높을지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에어 프라이어 구입 후에도 막상 새로운 기기를 배우자니 귀찮아서 사용하지 않다가 보면 가뜰이나 한 덩치 하는 에어 프라이어는 주방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기 일쑤다. 지난 크리스마스, 혹은 어머니 날에 자녀들에게 선물 받은 에어 프라이어가 먼지만 가득 쌓인 채 부엌 한구석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면 오늘 당장 박스에서 꺼내어 사용법을 익혀 보자. '요알못' (요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조차 요리를 즐기게 만들어주는 신세계를 경험하게 될 테니 말이다.

### 홍(서)지은 기자 약력

USC 동양학과 심리학 전공  
라디오서울·미주한국일보 기자  
현 공인 회계사·슈퍼맘  
소셜미디어·웰빙 기사 다수 게재



# 바이든 행정부 '부자세' 도입 만지작

## 법인세 인상, 40만 달러 이상 고세율, 공화당 설득이 과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연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공보담당은 지난 22일 "바이든 대통령은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1993년 빌 클린턴 행정부 이후 첫 주요 연방 세금 인상으로 정치적 위험도 따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현재 미국 세금 체계가 불공평하다며 꾸준히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인상 계획의 성패는 일부 민주당과 공화



당의 반대를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백악관은 진보 성향의 상원의원 엘리자베스 워렌(민주)의 노골적인 '부자세'에 대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유세에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인상을 제시해 이번 세제 개혁도 당시 제안을 그대로 반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인상안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의

명의 관계자 4명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세법의 일부를 철회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세법을 만들었다.

이들에 따르면 ▲법인세를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한다 ▲유한책임회사나 파트너십과 같은 일명 패스스루비즈니스(기업의 수익을 소유주의 개인소득으로 잡아 법인세 대신 개인소득세를 내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의 축소 ▲40만 달러 이상의 개인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상속세 면제 범위 축소 ▲연 1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자본소득세율 인

상이다.

백악관의 헤서 버우시 경제 자문은 연 40만 달러 미만의 소득층의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번 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득을 보는 고소득층에 대해 어떤 인상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의 세금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향후 10년간 최소 2.1조 달러에서 4조 달러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한 독립 분석 회사가 예측했다.

하지만 이 세금 인상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무력하기 위해 최소 10명의 공화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공화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의회를 통과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직장 보험)

## COBRA 가입 결정도 60일에서 1년으로 연장

### 오바마케어 지원 확대 9면에서 계속

다만 COBRA 보험료 보조는 202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만 해당된다. COBRA기간이 지나면 보조금은 9월 30일 이전에 끝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1일 감원돼 COBRA에 들어갔고 18개월 동안 지속된다면(2021년 8월까지) 보조금은 2021년 4월부터 지급돼 COBRA가 끝나는 8월까지만 지급된다.

다른 직장을 찾아 보험에 가입했다면 COBRA 보조금도 더는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장을 찾아 건강보험을 받았다면 반드시 COBRA(전 직장)에 통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할 수 있다.

다만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뒀다면 COBRA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특히 직장인의 죽음, 이혼을 포함한 일생에 중요한 사건으로 인해 COBRA에 들어가는 경우도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메디케어에 가입했거나 더는 부양 자녀에 포함되지 않을 때도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COBRA 보조금은 직장 감원이나 시간이 줄었을 때만(파트타임) 지급된다.

▷팬데믹 이전에 COBRA에 들어 갔어도 선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COBRA에 가입하려면 직장

을 떠난 지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연방 노동부가 발행한 '코로나 재난 구호공고'를 통해 팬데믹 동안 COBRA 선택 기간을 연장해 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직장을 그만둔 지 1년 이내에 결정하거나 코로나 비상사태의 종식을 선언한 이후 60일 이내로 확대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초 감원됐고 COBRA 결정 기간이 2020년 5월 1일까지였다면 COBRA 결정을 2021년 5월 1일까지로 연장했다는 말이다.

물론 올해에 감원된 사람도 향후 1년간 결정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비상사태가 올해 9월 종식된다고 가정한다면 종식 후 2개월, 즉 11월까지 COBRA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간 연장은 직장 감원 이외에도 사망, 이혼 등 일생의 중대한 사건에도 해당된다.

보통 COBRA는 60일 이내에 선택했다고 해도 그만둔 날부터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보조금 규정에도 이 규정이 그대로 적용돼 2021년 4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보조금 대상이 된 사람들도 그만둔 날부터 소급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미 COBRA에 들어가 돈을 내는 사람들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COBRA 보험료 보조금은 개인 소득으로 계산되지 않으므로 세금이나 기타 정부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COBRA 보조금을 받았다고 해도 메디케어 또는 보험 거래소 보조금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보통 COBRA를 선택하면 COBRA 커버 기간이 종료되거나 다음 연중 가입 기간 중에만 보험 거래소를 통해 보험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COBRA 보험료 보조가 끝나도 특별 가입 기간(SEP)으로 편입돼 연중 가입 기간 이전이라도 거래소를 통해 구입할 수 있다.

### 기타 변화

ARP에 따라 2021년 개인당 1,400달러까지 지급되고 있다. 이 보조금은 택스 크레딧으로 간주해 과세 수입으로 잡히지 않는다. 따라서 세금을 낼 필요도 없고 수입으로 잡히지 않아 기타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업수당 역시 2020년 연방 세금 보고에서 제외된다. ARP는 2020년 개인에게 지급되는 실업수당 첫 1만200달러까지 개인의 조정 후 총수입에서 제외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 보험 거래소에서 받는 보험료 보조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2020년 택스 크레딧을 더 많이 받게 된다.

새 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세금 보고를 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IRS는 일부 제 신청자에게 새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다시 환불을 해주고 있다.

연방 후생복지부는 바뀐 보험료 보조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지만 기타 변경 사항을 좀 더 시행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 장수시대 장기 간병 대비해야

### 양로병원 독방 비용 4면에서 계속

지급 금액은 나이에 따라서, 또는 주택 가격이나 집에 쌓여 있는 에퀴티에 따라 달라진다. HEC도 일반 모기지를 구입할 때와 같이 이자율 포인트가 적용되고 비용이 든다.

특히 이런 방식으로 수입이 생길 경우 메디케이드나 극빈자 보조금(SSI)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말기보험 청산

장기 간병 비용을 위해 현재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을 제 3자에게 할인해서 판매할 수도 있다. 이를 '바이티칼'(Viatical) 또는 '라이프 세틀먼트'(Life Settlement)라고 부른다.

생명보험을 구입하는 회사들은 주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생명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우선 보험을 판매한 회사에 이런 정책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좋다.





“Spring!” 48x72 inches, acrylic painting by Kyungsoo Lee

## 희망의 색으로 시작하는 봄!

봄, 봄, 봄! 절기상으로 봄인데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고 지내서인지 계절의 감각을 느끼기엔 아직도 둔한 감이 있다.

나뭇가지에 새순이 돋고, 죽어있던 들 풀들이 파릇파릇 굳은 땅을 뚫고 나오는 것을 보면 비로소 봄이 우리 앞에 오고 있음을 알린다. 생명력의 시작이다. 봄에는 모든 일의 시작이 있는 듯 해서 희망을 본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시작을 해야만 할 것 같다. 시작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상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봄을 색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색일까? 각 개인의 느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눈에 비친 봄은 파스텔톤으로 정리된 투명한 수채화처럼 보인다. 민트빛의 신선함과 젊음의 연 주홍, 밝음의 노랑, 신비한 라벤더 빛이 곁들여진 가벼운 산뜻함이 있다.

봄에는 들뜸이 있다. 모든 생물이 꿈틀대기 시작하니 온 대지가, 공기가, 바쁜 숨들을 쉰다. 아련하게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와 그 속을 뚫고 나오는 한 줄기 햇살도 싱그럽다. 가끔씩 적셔주는 봄비도 그 몫을 더한다. 아직은 계절의 시작,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 설렌다. 온통 화사한 색으로 탈바꿈이 시작되는 예쁜 봄의 산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계절의 선물이

“  
색채는 인간의 마음에  
위로이며 즐거움이다



“Archaeological Series #1 & #2”, glass art by Kent Kahlen

다. 온통 사랑이 희망의 색으로 채워지는 것 같아 마음이 따뜻해 진다. 색과 우리의 생활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 아침에 눈을 뜨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는 모든 주위의 사물들과 자연에서 수많은 색을 보게 된다. 무채색 이외에도 기쁨과 승리의 상징인 붉은색, 고요와

여유로운 휴식을 선물하는 녹색, 다소 유아적이지만 달콤한 기분 좋음의 분홍색, 밝음과 희망의 색 노랑, 심연함과 사색의 깊이를 더해주는 파란색의 파장, 또 신비롭고 고귀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보라색까지. 모든 색은 빛의 반사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런 많은 색 속에

서 우리는 직, 간접적으로 생활의 영향을 받고 있다. “완전한 오관과 올바른 기질을 가진 사람은 모두 색채를 즐긴다. 색채는 인간의 마음에 영원한 위안이며, 즐거움이다. 색채는 인체의 생명과 하늘의 빛남과 땅의 청결함과 확고함을 연상케 한다. 죽음과 밤, 모든 부정은 색채를 갖지 않는다” 미술학자 존 러스킨의 말이다. 우리들의 정서와 감정의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의미한다. 단지, 우리는 공기의 가치를 잊고 지내듯 색의 중요함을 모르고 지내고 있다.

요즘처럼 생활이 덤덤하고 밋밋하게 느껴질 때, 주위를 둘러보면 많은 색 속에서 또 다른 색 찾기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색과 그 색의 조합도 생각해 보면 한결 기분이 좋아지리라 생각된다. 봄의 한 가운데서 내 마음의 봄의 색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 하루하루 조금씩 색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 있는 색 감각의 깊이를 체험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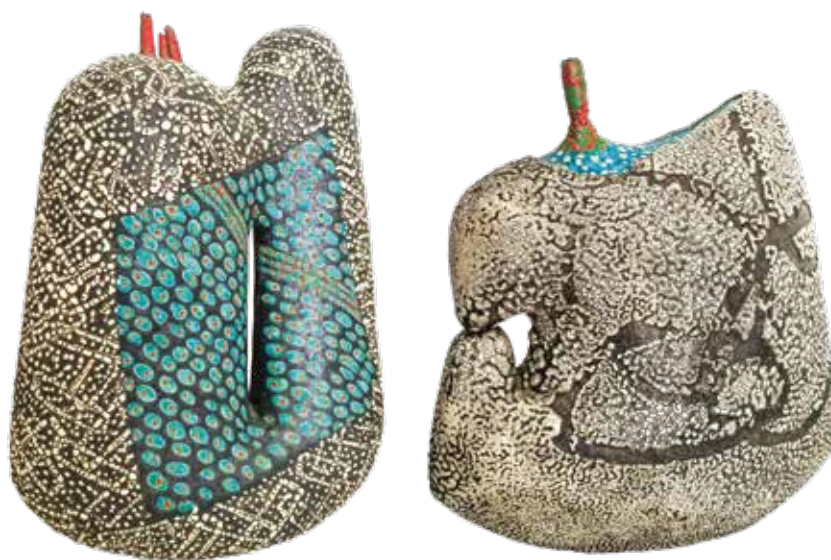
생각보다 긴 팬데믹 기간동안 우리는 많이 지치고 움츠려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색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에너지를 생각해 보면서 이 힘든 시기를 잘 이겨냈으면 한다.





“Landscape” 18x36 inches, oil painting by Paul Urban

## “미에는 정답이 없다”



“Garden” ceramic art by Yoshiro Ikeda

미술이란 무엇일까? 미술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우리는 학창 시절에 미술 수업을 오랫동안 받아왔지만, 그 답을 쉽게 내리지 못한다. 아름다운 미에 기술 술을 보태어 아름다움을 만드는 기술 정도로 미술을 정의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며, 그 아름다움의 기준은 또 어떻게 정할 것인가. 질문에 질문의 꼬리는 이어지기만 한다. “미에는 정답이 없다”가 답이다. 모든 사람의 기호의 다양성만큼이나 아름다움의 기준과 정의는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처럼 개성이 존중되는 세상에선 더욱더 그 기준이 어려워진다.

우리가 상식 선상에서 생각하게 되는 아름다움이란 균형과 조화가 적절히 이루어진 보편성의 미를 의미하지만, 미술사적으로 보면 꼭 그런 것 만도 아니다. 아리

### 미술은 내가 나에게 투자한 영원한 보금자리 우리 삶 질을 발전시켜주는 생활의 기본 요소

스토텔레스의 “미는 추다”라는 다소 역설적인 발언으로도 미의 해석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앞서 많은 예술가의 작품들에서 보면 시대적으로도 표현되는 미의 개념과 표현 방식은 상당히 다양하다. 사실적인 아름다움에서부터 인간 내면의 여러 가지 감정, 분노, 삶과 죽음, 또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표현주의와 개념 미술 까지 사실상 미술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역이 넓다.

나에게 미술이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니 내 인생을 함께한 꿈이었고, 난 지금

도 그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다. 아주 어릴 적부터 크레파스를 장난감 삼아 갖고 놀았던 시절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그림 잘 그리는 애’가 되어버려 그림을 계속해서 그렸다. 숙명처럼 미술 전공을 거쳐 운명처럼 화가가 되었다. 모든 것 들을 아껴서라도 세계 곳곳의 미술관 발품을 팔며 내 예술적인 욕심을 채우기 바빴으니, 미술은 내가 나에게 투자한 영원한 보금자리 같은 것이다.

그러나, 미술이란 꼭 예술가에게만 해당되는 것 만은 아니다. 미술은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영역에 퍼져있다. 우리

의식주의 모든 생활이 미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물건하나를 구입할때도 디자인을 살펴보고 색상을 선정하는 데 고심을 한다. 음식을 할 때도 재료의 색과 형태와 밸런스에 집중하게 된다. 또, 옷을 코디하거나 화장을 할 때도 더욱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다. 집을 지을 때나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위해서도 디자인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까 연구를 하는 것이 미술이다.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의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까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미술이란 우리 삶의 질을 발전시켜주는 생활의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겠다. 평소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미술은 우리 생활에 많은 즐거움과 활력을 가져다주리라 생각된다.





김동희의  
**세상보기**

커뮤니티 헬스워커

# 4565를 위한 건강 키워드 톱 10

(45세~65세)

## 건강 사각지대 중장년층 1년에 한 번 정기검진 필수

커뮤니티 헬스워커로 일을 시작하면서 건강에 관심이 커졌다. 나이가 들어가는 까닭도 있다.

처음엔 시니어 분들을 도와드리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다르다. 한인사회 건강 사각지대는 45세에서 65세의 중장년층이다.

한창 일하느라 바쁜 40대, 이룬 것을 지키느라 건강이 나빠지는 지도 모르는 50대, 메디케어를 받으면 건강검진 제대로 받겠다며 정기검진을 미루고 있는 60대가 나 자신과 이웃의 모습이다. 건강보험이 없거나, 있어도 병원 한 번 가보지 않은 이들을 만나면서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은 꼭 받으라고 조언한다. 그 때마다 연령별 건강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40대, 50대, 60대엔 무슨 검사를 받아

야 하는지, 기본적인 건강관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한 눈에 정리된 자료를 만들고 싶었다.

USC 썬크 의대 임상부교수이자 USC 노리스종합암센터 암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시는 안상훈 박사에게 도움 말을 구했다.

건강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지만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4565(45세~65세)들을 위한 건강 키워드 톱 10을 소개한다.



**01 #40** 건강이 예전같이 않다고 느껴지는 나이. 40대 부터는 콜레스테롤과 당, 혈압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여성은 유방암 검사와 자궁경부암 검사 등 부인과 검사를 해야한다. 40세가 넘으면 위장관련 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가족력이 없더라도 의사와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의논해본다. 골다공증은 좋아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0대부터는 비타민 D(800 IU)와 칼슘(1000mg)을 섭취하여 예방하는 것이 좋다.

**02 #50** 남성은 기력이 떨어짐을 느끼고, 여성에게선 폐경이 시작된다. 폐경이 온 50대 초반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 50세 남성은 전립선암 검사 여부를 주치와 상의한다. 50세까지 대장암 검사를 한 번도 안해봤다면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 대장암은 대장내시경이나 대변검사로 할 수 있다.

**03 #65** 이팔청춘이지만 건강엔 빨간불이 켜지고 아픈 곳도 생

긴다. 65세 생일을 전후로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점까지 정기검진을 미루는 경우가 있다. 건강은 65세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 최소한 매년 1회 정기검진으로 미리 미리 건강을 챙기는 것이 좋다.

**04 #예방접종** 폐렴이나 대상포진은 예방접종으로 항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한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홍역, 볼거리, 풍진, 파상풍, 백일해는 10년에 한번 접종하고, B형 간염 항체도 검사해보는 것이 좋다. 독감 예방접종 역시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나 시니어들은 꼭 하는 것이 좋다.

**05 #미국기준 VS 한국기준** 미국에서는 정기검사를 해야하는 항목이 백인들 위주로 정해져있다. 한인들의 생활습관이나 식생활을 고려할 때 한국의 검사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다. 주치의가 한인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강조해서 필요한 검사를 받도록 한다.

**06 #주치의** 현실에선 이런 정기 검사나 예방접종을 개인이 기억하고 챙기긴 쉽지 않다. 주치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다.

많은 경우 HMO 보증을 가진 경우만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PPO 등 보험의 종류에 상관 없이 미국에서는 나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주치의가 필요하다.

**07 #금연 & 절주** 사망 원인의 80%는 심장질환, 암, 사고이다. 사고사를 제외하면 1위 심혈관 질환과 2위 암을 예방해야 하는데 금연과 절주가 키워드다.

하루에 레드와인 1잔 정도는 괜찮지만 암을 예방할 생각이라면 음주는 안하는게 좋다.

**08 #야채** 야채는 하루에 350그램 섭취한다. 오이 4개의 양이다. 야채즙으로 마시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색상의 야채와 과일을 골고루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당도 조심해야 하는데 당류에는 탄수화물도 포함된다.

**09 #운동** 전문가들이 말하는 '운동'의 기준은 성인이 중강도로 일주일에 150분을 하는 것이다. 보통 하루 30분, 1주일 5회 이상 중간 강도를 권장한다. 빠르게 걸어서 약간 땀이 나는 강도의 운동이다.

**10 #수분 섭취** 하루에 1.5리터 이상의 물을 마신다. 특히 물은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한다. 우리 몸에서 점막은 보호층 역할을 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면 점막이 건조해지고 쉽게 바이러스 침투에 약해진다. 실내 환기도 중요하다.

**#무료검사** 캘리포니아주는 Every Women Count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여성에게 유방암과 자궁암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40세 이상 여성 중 저소득층이고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유두고닷컴(www.yudogo.com)에서 얻을 수 있다.

## 알아두면 쓸모있는 의료 영단어(3)

### Shingles: 대상포진 (싱글스)

사람 몸의 신경절에 잠복상태로 있던 수두-대상포진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질병. 예방접종은 2회 맞아야 한다.

### Pneumonia: 폐렴 (뉴모니아)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 감염에 의해 폐에 생기는 염증. 폐렴구균 감염으로 인한 폐렴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 Osteoporosis: 골다공증 (오스테오포로시스)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쉽게 골절되는 골격계 질환으로 노화, 여성은 폐경이 위험요소이다. 칼슘과 비타민D 섭취로 예방이 중요하다.

### PCP(Primary Care Provider): 주치의

어느 한 사람의 건강 상태나 병에 대해 종합적으로 상담, 치료해주는 의료진. 내과 의사나 가정주치의, 소아과 의사, 간호사 등이 PCP가 될 수 있다.

CA LIC. #0672600

• 붕제 협회 • 익류 협회 • 한의사 협회 지정업소 • 미주 한인세탁인 총연합회 / 단체보험 남가주 추천업소



# 45년 신용과 전통의 한미보험 보험료는 낮추고 보상은 충분하게!

- 사업체
- 종업원 상해
- 자동차
- 주택
- 건강
- 생명
-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 연금(IRA)
- 학자금 준비
- BOND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 한미보험이 늘 함께 있습니다

**1972**년 시작된 한미보험은 45년간 축적된 오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최대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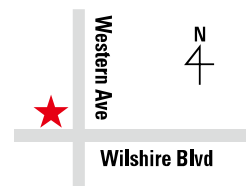
저렴한 보험료, 신속한 사고처리, 확실한 보상은 한미보험이 드리는 약속이며 고객들의 믿음입니다.

[www.hanmiinsurance.net](http://www.hanmiinsurance.net)



**한미보험(주)**  
SINCE 1972  
KORAM INSURANCE CENTER, INC.

**Los Angeles**  
323.660.1000



**Fullerton**  
714.562.0300



**Garden Grove**  
714.530.5500  
**Irvine**  
949.929.8870

**Valley**  
818.383.1111  
**Fresno**  
559.233.0099



 **NONGSHIM**<sup>®</sup>  
**SHIN**  
 SINCE 1986

*Just Act on Your  
 Spicy Instinct!*

